



이달의 포커스 뉴스

2022년 베트남 상반기 경제 동향 및 하반기 경제 이슈

2P

<기업탐방>

“한국의 명품 아파트,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by GS건설

27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대한상사중재원(KCAB) 25
☑ <기업탐방>	GS건설 조승열 법인장 27
☑ <노무> 베트남 직원의 해외 파견	전현우 변호사 32
☑ <법률 에피소드> 백지도 다시 보자	김유호 변호사 34
☑ <통관>	FTA활용지원센터 김태운 관세사 35
☑ <새로나온 베트남 관련 보고서>	40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빈프역성>	41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48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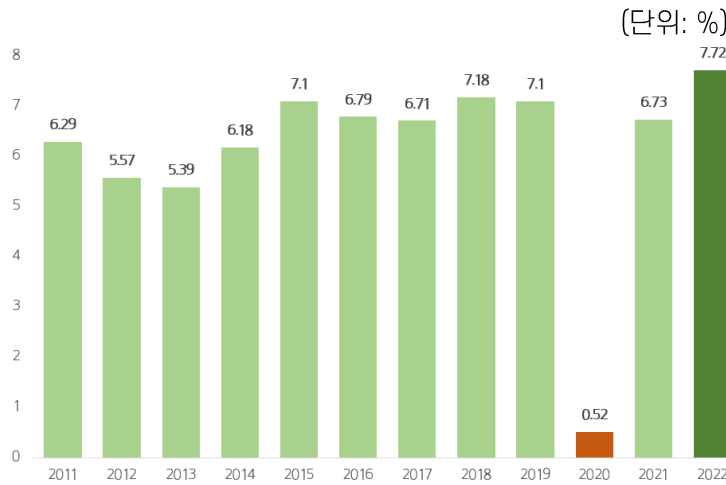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동향 및 하반기 전망

- 2022년 1분기 5.03%, 2분기 7.72% 성장률 기록하며 상반기 경제 반등 성공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하반기 전망은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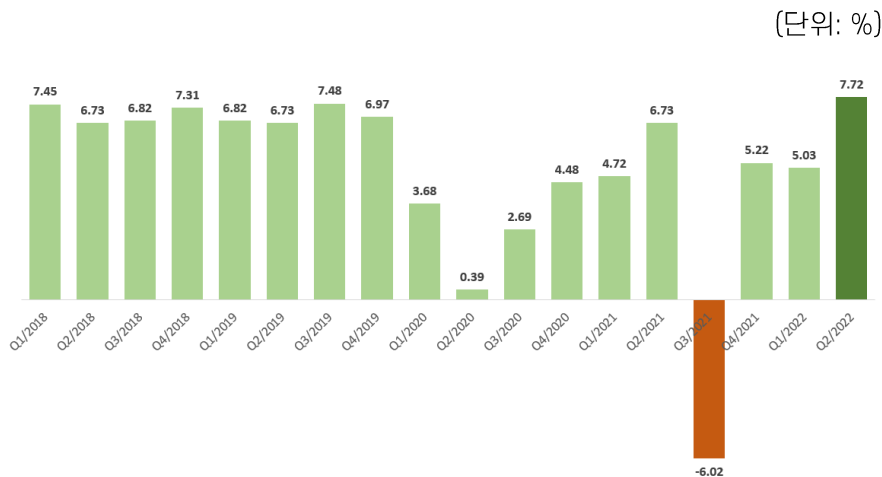
베트남, 2022년 2분기 및 상반기 경제성장률 발표

베트남 정부는 연초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설정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압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9일 베트남 2분기 GDP 성장률이 7.72%(잠정치)로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 및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2분기 성장률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역대 2분기 성장률 중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직전 분기인 1분기에 비해서는 2.69%p 상승한 수치이다.

<베트남 2분기 GDP 성장률(2011~2022년)>



<베트남의 분기별 GDP 성장률(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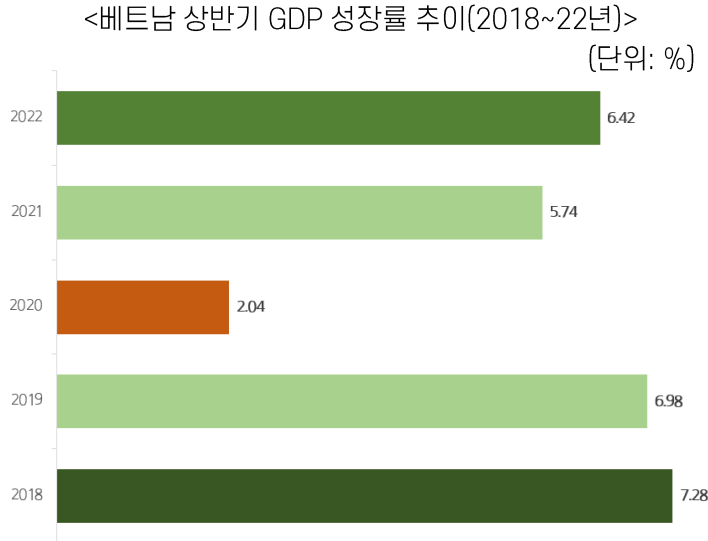
주: 각 연도 4분기 사회경제 현황 분석 보고서에 기재된 분기별 성장률로 기재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베트남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 내외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상반기 성장률이 2%대로 폭락하였으나 선제적인 방역정책을 펼친 덕에 2021년 상반기에는 5%대 성장률을 회복하였다. 코로나19 봉쇄의 여파로 베트남은 2021년 3분기에 역대 분기별 성장률 중 최저치인 -6.02%를 기록하였으나 방역조치 완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 덕분에 4분기부터 베트남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2022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6.42%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68%p, 2020년 동기 대비 4.38%p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성장률을 보면 베트남의 경제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본격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 의하면 베트남은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산업과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가공 및 제조업, 소비재 및 서비스의 총 소매 판매액, 상품 수출 등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더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경제의 회복 원동력

베트남 경제가 코로나19를 완벽히 극복했다고 보기에는 이른다. 아직도 베트남은 코로나19 충격의 회복기에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과 더불어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각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에서 올해 첫 6개월 동안 베트남 경제는 개선의 조짐을 보였다. 상반기 베트남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는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정부의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계획에 대한 결의서(Resolution No. 11/NQ-CP)'와 국회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결의서(Resolution No. 43/2022/QH15)'는 경기부양의 기반이 되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월 경기 위축 국면 타파를 위해 역대 최대 지출액인 347조 동(약 18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승인한 바 있으며 경기부양책은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대출금리 인하 및 부채구조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월부터 1년간 부가세 인하(10% → 8%) 조치를 시행하고 3월부터 5년간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15% → 3%)하는 등 각종 소비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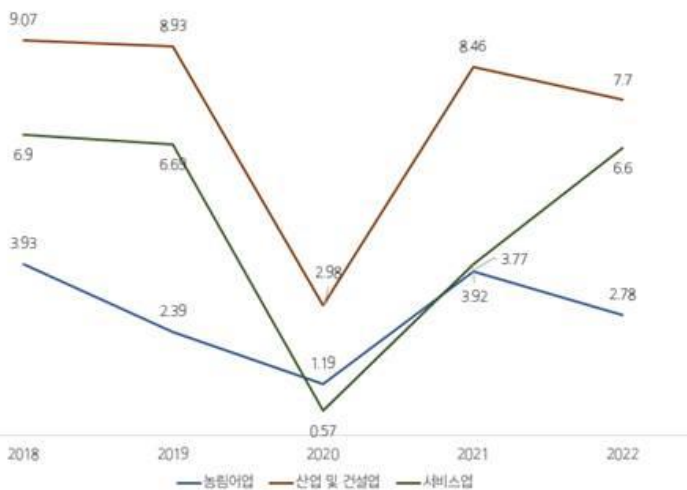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조업 정상화 및 국경 재개방 등의 조치 역시 베트남 내수 경제에 활기를 부여했다. 또한 지난 5월 베트남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제31회 동남아시아게임(SEA Games) 역시 교역,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지난 1~5월 베트남의 수출은 1,53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7% 성장하였다. 5월 수출이 전월 대비 다소 감소(△7.2%)하긴 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8.1% 증가한 수준이었고 1~5월 무역수지도 4억3,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세계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양호한 교역 실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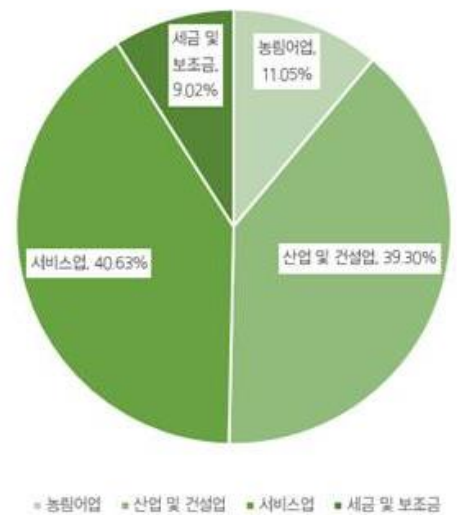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경제 산업별 성장률 및 GDP 구성

2022년 상반기 가장 크게 성장한 산업군은 역시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산업 및 건설업’이었다. 올해 상반기 ‘산업 및 건설업’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낮은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2021년 상반기 성장률이 3.77%에 불과했던 ‘서비스업’은 위드코로나 정책과 국경 재개방 등의 조치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6.6%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성장률은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상반기 성장률인 6.69%에 견줄 수 있는 수치로, 서비스업종의 경기가 크게 회복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상반기 산업별 경제성장률(2018~22년)>
 (단위: %)



<2022년 상반기 GDP 구성>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2022년 상반기 베트남의 GDP 구성을 나누어보면, 우선 서비스업이 40.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 및 건설업이 39.30%로 근소하게 낮은 수치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 농림어업이 11.05%를 구성하였다.



농림어업 현황

2022년 상반기 베트남의 농림어업은 전년 동기에 비해 2.78% 성장했다. 베트남 통계청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높은 생산 투입비용에도 불구하고 2분기 농림어업의 생산량은 양호한 성적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했다. 일부 다년생 작물은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돼지 및 가금류 생산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임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목재 생산, 가공 및 수출 수요 확대에 따라 목재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였다. 특히 유가 상승 여파로 운송 비용이 증가하면서 목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대신 현지에서 조달하려는 목재 가공기업이 많아져 벌목 활동이 활발하였다.

양식업은 높은 소비자 수요와 수출가격 상승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상반기 양식업 생산량은 약 22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2분기 기준으로는 9.2%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어업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해안에 정박하는 어선이 늘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였다.

<2022년 상반기 베트남 농림어업 분야 주요 품목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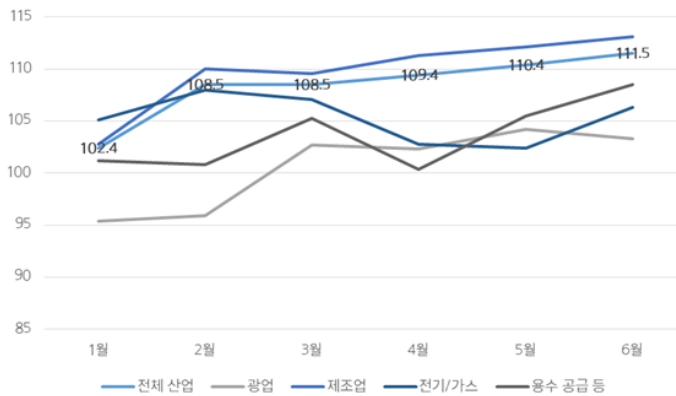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산업 및 건설업 현황

2022년 첫 6개월 동안 베트남의 산업 및 건설업의 총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생산 및 기업활동이 정상화되면서 2022년 1~6월 각 월별 산업생산지수(IIP)는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다.

<베트남의 2022년 1~6월 월별 산업생산지수>



주: 전년 동기를 기준 시점으로 두고 계산한 지수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특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산업은 역시 베트남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으로, 2022년 상반기 제조업의 IIP는 전년 동기 대비 9.7% 상승하였으며 1월을 제외하고 2~6월 전체 산업의 IIP를 상회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도 강한 성장세를 보였던 산업으로는 의류 제조업(23.3% 증가), 전기용품 제조업(22.2% 증가), 의약품 및 제약 제조업(17.5% 증가) 등이 있었다. 베트남의 63개 성·시 중 하핑성, 파빙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61개 지역은 모두 상반기 IIP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상반기 베트남 주요 생산품목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휴대폰 부품의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인 해산물(가공)과 의류 생산량 역시 각 12.2%, 12.1%의 성장률을 보이며 경기 회복에 기여하였다. 다만, 원유(△1.2%), 철강(△2.4%), 휴대폰(△4.3%)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다.

<2022년 상반기 베트남 주요 품목의 성장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서비스업 현황

올해 6개월 동안 소비재 및 서비스의 총 소매 판매액은 1,16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내수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이 체감된다.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던 분야는 여행업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4.4% 성장한 3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상품 소매 판매액은 93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숙박 및 식음료는 115억 5,500만 달러로 20.9% 성장하며 위드 코로나를 실감케 했다.

한편, 국경 개방과 함께 베트남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은 60만 명 이상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아시아 국적 방문객이 약 39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유럽(9만 6,000명), 미주(8만 1,000명), 호주(3만 명)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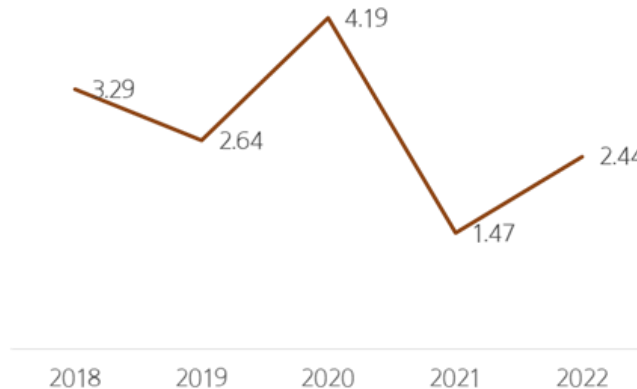
서비스 업종의 상반기 성장률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5.82%, 금융, 은행업 및 보험 활동이 9.5%, 숙박 및 음식업이 11.19%, 운송 및 보관업이 8.1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물가 현황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도 물가 향방에 관심을 쏟고 있다. 베트남의 2022년 1~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2.44를 기록하며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47% 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2018~20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베트남 물가는 아직까지는 안정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통계청은 베트남의 강한 경제 회복세 속에서 내수 및 수출용 상품 생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필수 가격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 물가 지수는 잘 통제되었다고 평했다.

<베트남 각 연도별 1~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2022년 하반기 베트남 경제의 향방

베트남 국회에서 설정한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6.0~6.5%다.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 예측한 세계 경제성장률이 3~4%대에 형성돼있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고 야심찬 수치다. 특히 2022년 6월 OECD는 우크라이나 분쟁 지속으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아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OECD는 2022년 세계 GDP 성장률이 2021년 12월의 4.5%에서 2022년 3%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세계은행(WB)은 2022년 6월 7일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는 당초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자료: OECD, 세계은행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상반기 베트남 경제는 각종 경기부양책 시행과 산업활동 정상화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상반기 실적을 업고 베트남은 하반기에도 기저효과 및 제조업 경기 호조에 따라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내수 측면에서는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특히 그간 부진했던 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 경기 회복세 지속이 예상된다. 올해 3월 15일부로 국경을 개방한 베트남은 5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본격화되었다. 해외 관광객 유입과 함께 요식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베트남 GDP의 약 10%를 차지했던 관광업 등 서비스업종의 회복세가 완만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산업활동이 정상화되고 가공·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도 지속되면서 제조업 중심 산업 경기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베트남 투자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약 1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위 투자 분야인 가공·제조업 분야의 투자액은 88억 3,521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투자액인 69억 7,780만 달러 대비 약 26.6%가 증가하였다. 국경 재개방 및 방역정책 지속 완화에 따라 지난 2년간 주춤했던 한국의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가 하반기부터 점차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잔재함에 따라 베트남 역시 원자재 수급과 물가관리
 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역 측면에서 보면, 러-우 전쟁, 고물가 지속에 따른 선진시장(M·EU) 소비수요 위
 축 및 글로벌 교역량 감소가 가장 큰 리스크이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원부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급
 망 교란과 베트남 주요 수출품(스마트폰, 전자제품, 의류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감소가 계속될 경우 교역
 규모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협정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입지가 확고
 한 만큼, 동북아와 아세안을 잇는 핵심 생산허브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의존적인 베트남 경제는 환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글로벌 경기 수축 국면에서 달러 강세, 동화 약
 세가 전망된다. 러-우 전쟁, 중국 봉쇄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타격을 가하는 이슈들이 터지면서 올해 1월
 부터 동화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은 신흥국 중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원자
 재(원유 등)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보기 어려운 바 1달러당 22,500~23,500동 사이에서 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주요 변수는 중국의 방역조치와 원자재 및 부품 공급망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주로 중
 간재·자본재를 수입(약 50%), 가공하여 완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
 후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 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와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가 필수적이다.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정 등의 요인이 경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
 서 베트남의 2022년 상반기 경제실적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2분기 경
 제성장률이 역대 동 분기 성장률 중 가장 높은 수치인 7.72%라는 점은 예상 외이다.

베트남은 암울한 글로벌 경제전망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국경 개방
 및 국제 관광 활동 재개는 베트남 서비스 부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가공 및 제조업 경기의 호조와
 더불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영향은 하반기에도 베트남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인한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은 개방적인 베트남 경제에 큰
 잠재 위협요소로 남아있다. 세계적으로 상품,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공급망,
 특히 휘발유 가격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생산 비용과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의
 관계자는 내수 경기가 호조를 보이거나 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이 여전히 회복 단계에 있어 베트남의 6.5%
 성장률 달성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음을 덧붙였다. <끝>



2022년 하반기 베트남 경제 주요 이슈는?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정부 주도 경제회복 프로그램, 급변하는 대외여건 등이 주요 이슈
- 코로나19 이전 고성장 달성은 어렵지만 6%대 목표치 달성 전망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2분기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7.72%를 달성해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3년만에 가장 높은 6.4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감소했고 위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등 이동제한이 완화됐다. 또한, 대외 수요 회복으로 내수 회복이 가속화되고 수출 및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하반기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하반기 베트남 경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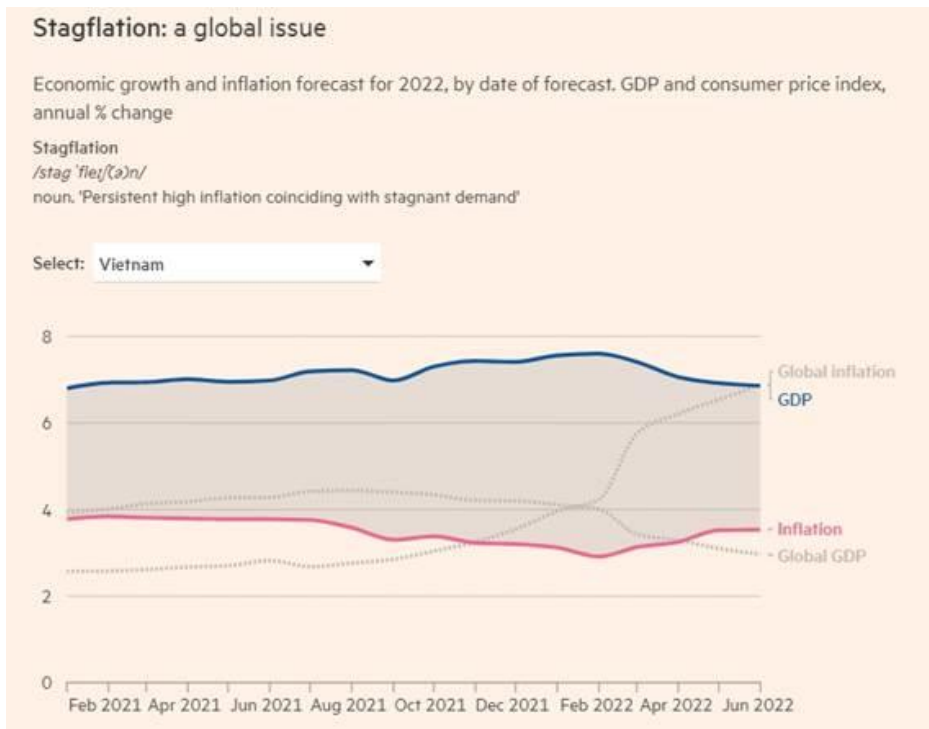
하반기 경제전망 주요 이슈

1)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올해 오미크론 재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망 차질 및 원자재 수급 악화를 유발하며 글로벌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6개월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44% 증가했고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동기 대비 낮은 수치이다. 리오프닝 이후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비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단위: %)



[자료: Financial Times]



한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왔으나 22년 통화량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 역시 재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솔루션스(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실질가계지출은 5.68% 상승할 전망으로 작년 1.74%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 재개가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 2026년까지 베트남 가구 평균 가처분 소득이 매년 약 8.5%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내소비의 성장을 비롯해 휘발유 가격 급등, 정부 부양책 등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요인이 일부 있지만 관리목표인 4%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다.

<기관별 '22년 베트남 인플레이션 전망>

(단위: %)

베트남 정부	HSBC	Fitch Solutions	IMF	Standard Chartered
4.0	3.5	3.7	3.9	4.2

[자료: 현지 언론 종합]

2) 정부 주도 경제회복 프로그램

지난 1월 베트남 국회는 350조 동(한화 약 18조4450억 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경제성장률 연평균 6.5~7%라는 베트남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팬데믹 예방 및 의료사업, 사회보장제도, 기업지원, 공적투자 촉진, 국가 경영 등 5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포함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베트남 경제의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021~2025년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 계획에 따르면 인프라 산업 투자 방향은 크게 교통, 에너지, ICT, 농촌 및 도시 기반 시설로 구분된다. 베트남 교통부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심해 항구 및 신규 국제공항 프로젝트를 포함한 2021~2030 교통 인프라 마스터 플랜 초안을 발표했고 연초 발효된 민관협력법(PPP)을 통해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인프라시장 규모 및 연간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장규모	4,757	5,246	5,775	6,314	6,921
연간성장률	6.7	6.5	6.3	5.5	5.7

[자료: 현지언론,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상반기 공공투자 지출이 목표치의 27.9%에 도달하는 등 '2022년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가예산 계획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와 솔루션에 대한 정부 결의(01/NQ-CP)'에서 설정한 과제의 72.6%를 이행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 관련 약 8조9000억 동(한화 약 4조4000억 원)의 지원 등 상반기에 모두 48조 동(20억5400만 달러) 이상을 집행했다. 여기에는 사회정책은행의 지원금, 부가세·법인세·소득세·토지임대료 감면, 유류세 감면액 등이 포함됐다. 경기 부양책 시행을 위해 '2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를 승인하며 GDP의 5.1%까지 재정적자를 허용하여 하반기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속될 예정이다.



3)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

베트남은 지난해 국제연합(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향후 10년간 베트남 전력 개발에 관한 계획인 전력개발계획8(Power Development Plan 8)을 통해 국내에서 석탄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소비량을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관리 효과 향상, 기후변화 적응,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약속의 실현을 위해 2022년 1월 7일자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시행령) 제06/2022/NĐ-CP 호를 공포하여 202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소 구축 및 시범운영 실시 등 베트남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단계적 실행 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이전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식량 안보, 삶의 질 개선 및 환경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사람, 기반시설, 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세계은행 베트남지국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환경오염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업경쟁력 제고 등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이 저탄소 및 에너지절감 방안을 포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2030년까지 최대 11GW의 전력생산에 대한 신규 투자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기간 일부 주요 산업의 에너지 효율 및 절감에 대한 총 투자 수요는 36억 달러로 추산되며,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대외 여건 변동성

IHS Markit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러시아 및 베트남-우크라이나 간 교역액은 합쳐서 57억 달러로 베트남의 전체 교역액 중 0.8%에 불과하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석유·가스·밀·옥수수·알루미늄·니켈 등 주요 원자재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 수출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베트남의 교역량>

(단위: 달러, %)

국가명	순위	교역액	비중
러시아	22	5,144,496,895	0.72
우크라이나	58	524,996,512	0.07

[자료: IHS Markit]



한편, ‘베트남 국가관광개발 10개년 전략’에 따르면 2025년까지 관광산업의 GDP 기여율이 12~14%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러시아 관광객이 65만 명으로 6위를 차지해 관광 산업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19년 베트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순위	국가	방문객(명)
1	중국	5,806,425
2	한국	4,290,802
3	일본	951,962
4	대만	926,744
5	미국	746,171
6	러시아	646,524
7	말레이시아	606,206
8	태국	509,802

[자료: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PATA-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베트남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 중국, EU를 포함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및 대외 수요 위축 가능성으로 인해 교역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IMF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경제 성장률은 EU 2.8%, 미국 3.7% 중국 4.8%로 베트남의 주요국 대상 높은 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경우, 하반기 베트남 수출 성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오프닝을 선언하고 국경을 개방하고있지만 중국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고 도시 별 봉쇄가 이어지고있어 생산과 물류가 모두 중단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및 자본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완성품을 수출하는 베트남 경제에는 위기이다.

주중 EU 상공회의소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고 상하이 봉쇄로 두 달간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이 큰 피해를 입어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 설문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23%가 탈중국을 고려한다고 답했고 16%가 대안 지역으로 동남아를 선택해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내수회복 및 리오프닝 본격화에 따른 성장목표 달성

KIEP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하반기 수출 경기는 ‘22년 1월 발효된 RCEP, 주요 교역국의 방역 해제 등으로 인해 10%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을 위한 자본재, 중간재와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재 수입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 및 중간재 수입에서의 애로 등 대외 수요 정체 가능성이 있어 잠재 리스크가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전면 허용 등 대부분 방역이 해제되면서 국내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하반기 강한 내수 회복이 기대된다. 베트남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관광업이 베트남의 주요 경제 부문으로 자리하고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공급망 재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등에 따라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FDI 유입이 기대된다. '22년 1~5월 FDI 유입액 약 77억 달러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도의 73억 달러를 7.8% 상회한다.

'21년 성장률 2.6%에 따른 기저효과, 본격화될 리오프닝 효과, 견조한 펀더멘털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S&P Global Ratings는 베트남의 재정 관리 및 지속적 FDI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B등급에서 BB+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관별 '22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베트남 정부	IMF	Oxford Economics	ADB	Fitch	S&P
6.0~6.5	6.0	6.5	6.5	6.8	6.9

[자료: KIEP, 현지 언론 종합]

시사점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지속,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주요 국가의 긴축 등 대외여건 하방리스크로 인해 팬데믹 이전의 고성장을 달성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압력 및 내수 회복 전망,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견조한 수출 및 제조 경기, FDI 증가세 등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6%대의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 <끝>



베트남 기부품 수입 절차

- 기부품 면세를 위해서는 사전 승인 필수
- 기부금, 회계 비용으로 처리 가능

기부품 면세를 위해서는 면세 사전 승인 획득 필요

일반적으로 선물, 기부품 수입 시 법률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는 관세 및 부과세 등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개인에게 전달되는 선물은 200만 VND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또는 200만 VND를 초과하지 않지만 총 납부 세액이 20만 VND 미만의 선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만약 기업이 베트남 정부 조직에 기부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부품의 가격 제한없이 연간 4회까지 면세 가능하다. 다만, 면세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전 최소 15일 영업일 전에 관할 세관에 면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수입 후 면세 신청은 불가능하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도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부품, 수입 요건 허가 필요한가?

베트남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수입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다. 하지만 기부를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수입 절차는 보건부 169/2018/ND-CP의 지침에 의거 의료기기 분류 중 고위험군(범주 C, D)에 속하므로 수입 전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 수입허가 및 유통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만, 베트남 정부에 무상 원조 지원되는 자가진단 키트의 경우 수입 허가 및 유통 등록에서 면제된다.

기부금 및 후원금에 대한 회계상 비용

2021년 3월 31일 베트남 정부는 Covid-19 예방활동을 위한 기부금 및 후원금에 대해 공제비용으로의 처리를 안내하는 제44/2021/ND-CP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Covid-19 예방 활동을 위한(현금 또는 현물의형식으로 된) 기부금 및 후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베트남에서 Covid-19 예방 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된 후원 및 기부 비용, △제44호 시행령 제2조 2항에서 규정된 단체를 통해 후원 및 기부, △다음에 포함한 충분한 지원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제44호 시행령에 첨부된 양식으로 된 기부·후원이 확인된 증빙(기업 대표자 및 수령 당사자 대표자에 의해 서명·날인) 및 법규정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

시사점

베트남 정부 및 기업들의 ESG의 관심은 아주 초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 소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지 보다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기부 행위는 기업의 이윤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에서 베트남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22 베트남 해외취업 랜선 멘토링 참가기

- 2021 개정된 현지 노동법, 현지 취업시장 현황 등 점검
- 선배 구직자 등 현지 멘토 및 K-move 등 해외취업 프로그램 활용 필요

구직자가 알아야할 베트남 현지 노동법 (법무법인 로고스 김경섭 변호사)

해외 취업이 국내 취업과 다른 점은 해외 취업시에는 우리가 외국인 입장이기 때문에 적법한 노동비자 발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구직자들도 현지 노동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현지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비자는 기술자, 운영감독자, 관리자, 전문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1년 최근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해당 직무 관련 학위 및 3년 이상의 경력 등을 요구하는 등 외국인 노동비자 발급요건이 강화되어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은 노동비자를 발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창업경험, 프로젝트 매니저 멘토 A “직접 발로 뛰며, 현지 정보 및 인맥 만들어야”

베트남 취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들에게는 일단 직접 와서 경험을 해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다. 베트남 현지에서 취업과 창업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직접 발로 뛰면서 얻었던 정보와 한국인 베트남인 할 것없이 현지 인맥들의 도움이 가장 컸다.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해외취업 정보는 한계가 있으며, 정보의 신빙성도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베트남처럼 한국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국가의 경우에는 차라리 여행이나 한달 살기와 같이 직접 와서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도 얻고 인맥을 쌓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조업 경영관리팀 멘토 B, “GYBM 등 베트남 취업관련 지원프로그램 활용해야”

구직자들에게는 국내의 여러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활용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다. 코트라에서 지원하는 K-Move 프로그램,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 GYBM 프로그램 등 해외취업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교육과 취업 알선을 넘어서서 현지에서 정착할 때 여러 선배 기수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생활하고 정착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선배가 멘토가 되어 다양한 조언을 해준다면, 해외 취업 및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사점

베트남은 미국, 유럽, 일본 다음으로 한국인 구직자들이 관심을 갖는 취업시장으로 해마다 한국인 해외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구직자들은 베트남의 작년에 행해진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조치와 최근 강화된 노동비자 발급 요건으로 베트남 취업길이 좁아질 것을 가장 많이 우려하였다.

구인정보, 취업시장 현황 등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는 국내 취업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기가 어려우며, 인터넷 상에서 얻은 정보의 경우도 신뢰성 등을 사전 체크해보아야 한다. KOTRA 다낭무역관의 해외취업지원센터에서는 월드잡, 네이버 카페(KOTRA와 함께 베트남취업)를 통해서 검증된 구인 공고 및 현지 취업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멘토링 행사를 통해 기 취업자들의 현지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착한 포장', 바뀌는 베트남 포장 산업

- 베트남 포장업계 빠른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
- 친환경 포장 소재, 불필요한 포장 제거 등 '착한 포장' 사례 증가

'착한 포장' 늘어가는 베트남 포장 산업

최근 베트남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의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의 포장산업에서도 '착한 포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Nielsen Vietnam에서 베트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친환경 제품에 대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Lavie, CocaCola 등 소비재 제조 및 포장재 선도기업들도 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9년 "베트남 포장 재활용 기구(Packaging Recycling Organization Vietnam, PRO Vietnam)"를 결성, 친환경 포장 사례 공유, 재활용을 통한 포장재 순환 경제 구축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친환경 포장 사례 ① :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 사용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HSBC 베트남은 베트남 최초로 재활용 폴리 염화비닐(rPVC) 플라스틱으로 만든 카드를 출시했다. HSBC 베트남은 2026년까지 모든 카드를 재활용 폴리 염화비닐(rPVC)로 만든 카드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61톤의 Co2 배출량과 연간 73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SBC 베트남 자산 및 개인뱅킹 책임자인 Pramothe Rajendran은 "환경이 베트남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재활용 카드로의 전환과 더불어 HSBC는 베트남의 2050년 까지 탄소 배출 제로(net-zero)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베트남 친환경 포장 사례 ② : 불필요한 포장 제거, 포장재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구축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고, 포장재를 재활용하여 순환 경제에 힘쓰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외투 기업인 네슬레 베트남(Nestle Vietnam)은 생수 브랜드 라비(La Vie)의 음료 캡 부분의 불필요한 비닐 포장을 제거하거나, 푸른색으로 염색된 PET 및 플라스틱 포장을 하얀색으로 변경하면서 잉크 소모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에 용이하게 포장 방법을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베트남에서 최초로 식품 등급 재활용 플라스틱(rPET)으로 만든 미네랄 워터 제품인 La Vie 700ml를 출시하는 등 베트남에서 '착한 포장'을 선도하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 소비재 및 포장 기업들도 이른바 '착한 포장'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바나나 잎을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사용하는 기업부터, 불필요한 과포장은 줄이고 재활용에 적합하게 포장 디자인을 바꾸는 기업까지 다양한 '착한 포장'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쇼핑백, 친환경 제품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도 또한 많아지고 있어, '착한 포장' 추세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Z세대를 노리려면 e스포츠 시장을 공략하라

- 2021년 기준 베트남 게임 이용자는 인구의 약 3분의 1에 달해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e스포츠를 접목한 마케팅에 주목할 것

베트남 게임 시장 개요

구글포게임즈(Google for Games)가 2021년에 발간한 Beyond 2021: Where does gaming go next? 보고서는 2021년 대양주를 포함한 아세안 대륙의 모바일기기 게임 이용자 수가 약 16억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베트남의 경우 2020년 이전 게임 중요지수는 7점 만점에 4.8점이었던 것에 반해 2021년 이후 5.0점으로 상승했다. 이에따라 베트남의 게임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의 게임 스트리밍과 e스포츠 생태계

베트남의 게임 스트리밍 시장에는 크게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게임 스트리머, 그리고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게임 스트리머는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하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제작자와 스트리머가 만든 콘텐츠를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유저 커뮤니티는 일반게임 및 e스포츠 게임의 플레이어를 포함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운영 채널 및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주요 시청자를 수혈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은 기존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파생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과 OTT 서비스에서 파생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등 두 가지이다.

Z세대, 온라인게임과 e스포츠의 중심

베트남의 대표적인 게임업체이자 게임 관련 컨설팅 업체인 아포타(Appota)는 2021년 기준 베트남에 약 1,800만 명의 e스포츠 선수가 있다고 밝혔다. 베로와 디시전랩 공동으로 2021년 10월 베트남의 17~41세 남녀 e 스포츠팬 503명에게 설문한 결과, e스포츠 스트리밍을 매일 보는 시청자는 전체 설문 응답자의 45.5%에 달했으며, 주 2~3회 시청자는 24.8%, 주 4~5회 시청자는 16.5%, 주 1회 시청자는 9.9%로, 전체 응답자 중 e스포츠를 매일 시청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제일 높았다. 응답자 중 80%는 코로나19 이후 e스포츠 플랫폼 사용 시간이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한 앱의 64.7%는 게임 앱이라고 응답했다

적절한 소비자 타겟팅 및 메시지 전달

기업은 브랜드를 홍보할 게임 인플루언서와 홍보방법을 고려할 때 원하는 소비자에게 도달할 가장 적절한 접근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브랜드를 이용할 만한 고객은 어떤 게임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게임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하는지, 어떤 게임 구단을 좋아하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공식적인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 캠페인 전개 이전에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는 특정 게임, 게임 관련 인플루언서, 프로 게임 구단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게임 이미지가 너무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게임의 팬층이 브랜드의 타겟 소비자보다 너무 어리지는 않은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2022년 1분기 베트남 신규 디지털 기업 3,422개사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22년 1분기 신규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취득한 디지털 기업은 3,422개사로 베트남에는 총 6만 7,300개사의 디지털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고 밝힘. 베트남의 신규 설립 디지털 기업은 매년 증가 추세로,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누적 디지털 기업은 2019년 4만 5,600개사, 2020년 5만 8,000개사, 2021년 6만 4,000개사에서 2022년에는 7만개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2년 상반기 디지털 기업의 매출액은 2021년 상반기 대비 17.8% 증가한 725억 달러 규모이며, 전체 매출규모 중 하드웨어 및 전자제품(570억 달러, 21.8% 증가), 컴퓨터(291억 달러, 16.4% 증가),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279억 달러, 11.2% 증가) 등이 수출액의 주를 이룸. 또한 올 1분기 '메이크인베트남'(Make in Vietnam)의 수출 규모는 전체의 26.7%를 차지한 194억 달러였으며, 우편통신 시장은 2021년 1분기 대비 30% 이상 매출이 성장함. 그러나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업이 대부분 호찌민, 하노이, 다낭, 박닌 등 4개 지역에 위치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베트남 전체 디지털 기업 수의 72%를 차지한다고 지적함.

[베트남 정부포털, 7. 19]

▶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 6월 차량 판매 대수 급감

현대 TC 모터 베트남은 올 6월 전월 대비 34% 감소한 4,278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대표 차량 품목인 액센트는 전월 대비 40.5% 감소한 1,086대, 크레타와 투싼 역시 전월 대비 각각 14.8%, 26.2% 감소한 830대와 479대가 판매되었다고 밝힘. 현대 TC 모터는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칩이 품귀현상을 겪으며 베트남에서 조립·생산되는 차량을 주문량 만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다고 밝힘. 혼다 자동차 베트남은 6월 한 달간 전월 대비 무려 46.5% 감소한 1,702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밝힘. 혼다 역시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으로 베트남에서 조립·생산을 원활히 할 수 없다고 덧붙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7. 14]

▶ 한국 관세청, 2023년부터 베트남과 전자 원산지증명 자료교환(EODES) 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관세청은 내년인 2023년부터 베트남, 인도와 함께 전자원산지증명 자료교환(EODES)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7월 15일 발표함. EODES를 사용하면 전자 플랫폼을 통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처리할 수 있음. 한국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도 수출업자, 생산업자, 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체인증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를 통하여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실수를 신속하게 수정하고, 세관 절차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양식D)를 전자 정보로 교환하기 위하여 9개 블록의 회원국과 아세안 단일창구를 효과적으로 구현했다고 밝힘.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2022년 6월 중순 기준 13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249개의 전자 행정 절차를 제공하고, 5만 4,800개 이상의 기업에서 492만 건의 신청서를 전자화한 베트남국가전자정부서비스(NSW)에 가입함.

[베트남 정부포털, 7. 16]



▶ 베트남 총리, 다오 홍 란 박닌성 당서기를 보건부장관 대행으로 임명

팜 민 쯔 총리는 7월 15일 다오 홍 란(Dao Hong Lan) 박닌성 당 서기를 보건부장관 대행으로 임명함. 전 응웬 탄 롱 보건부장관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해임 된 바 있음. 다오 홍 란 신규 보건부장관 대행은 1971년 7월 23일 하이즈엉 출생으로 2014년 사회보험국 부국장, 2014년 12월 노동보훈사회부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2016년 1월 당 중앙위원, 2018년 국회 상임위원회 집행위원 선출 후 박닌성 당 부서기장으로 임명됨. 2020년 9월 25일에는 2020-2025년 임기의 박닌성 당 서기로 선출되었으며, 2021년 1월 13차 전당대회에서 2021년-2026년 임기의 제13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음. 팜 민 쯔 총리는 다오 홍 란 보건부장관 대행 임명식에서 신규 장관대행은 풀뿌리 및 중앙 정부 수준에서 중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재원으로서 의료 윤리를 유지하고 당과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힘.

[Vietnamnet, 7. 15]

▶ 베트남, 철강 가격 올해만 8회 연속 하락

베트남의 철강 가격은 지난 5월 중순 이후부터 8회 연속으로 하락하여 총 13% 가까이 하락하였음. 베트남 최대 철강업체인 호아팻(Hoa Phat) 그룹은 7월 2째 주 주말에 압연강재 및 철근강재 가격을 8번째 인하하였으며 Vietnhat, VietY, Kyoiei, Pomina 등 타 철강업체들 또한 지난 두 달 동안 철강 가격을 인하 하였음.

[VN Express, 7. 13]

▶ 산업무역부 · 농업농촌개발부, RCEP 실행계획 구체화에 관한 회의 개최

산업무역부(MoIT)와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지난 7월 13일 '협정 기회를 활용한 지역 경제 커뮤니티 지원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한 회의를 주최함. 산업무역부 장관은 2021년 베트남의 무역규모는 처음으로 6,7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힘. 또한 무역회전율 측면에서 세계 20위권 안에 들었으며, 수출은 19% 증가하여 작년 연초 목표인 15%를 상회하고, 6년 연속 무역흑자 달성에 기여했다고 밝힘. 2022년 기준 베트남은 17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국이며 RCEP을 포함하여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RCEP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되어, 세계 인구와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서, 15개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베트남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신규 공급망을 촉진하고 세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Hanoi Times, 7. 13]



▶ 상반기 베트남 자동차 수입 21.4% 급감

베트남 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1~6월까지 약 16억 달러 상당의 완전조립(CBU) 자동차를 6만 3,730대 이상 수입하였고 이는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한 수량임. 업체 관계자들은 상반기 자동차 수입 감소의 원인은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과 공급망 붕괴 때문이며, 그 결과로 전세계 적으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전함.

[The Saigon Times, 7. 12]

▶ 경쟁·소비자보호국, 그랩의 폭염 할증료 징수 근거 명확화 요구

7월 6일부터 그랩은 ‘그랩바이크’, ‘그랩푸드’, ‘그랩마트’의 경우 주문 1건당 5,000 동(약 280원), ‘그랩의 스프레스’의 경우 주문 1건당 3,000 동(약 170원)의 폭염 할증료를 청구함. 그랩 소비자들은 이 폭염 할증료가 그랩 회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랩 기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랩은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음.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소비자보호국에서는 그랩에게 7월 18일 이전까지 폭염 할증료 청구 이유 및 할증료 사용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소비자와 홈페이지에 공시하라고 요구함.

[VN Express, 7. 12]

▶ 영국-베트남 FTA(UKVFTA) 발효 이후 영국의 대베트남 수출 23% 증가

2021년 초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이 발효된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영국의 교역량이 증가함. 2021년 영-베트남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66억 달러였으며, 베트남의 영국 수출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57억 달러, 영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한 8억 5,000만 달러에 이룸. 특히 영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된 품목 중 일반 금속(426%),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219%), 의류 및 신발(24.7%), 의약품(35.4%), 자동차(28%) 등이 크게 증가함. 베트남에서 영국으로 수출된 품목은 과채류(67%), 커피(17%), 후추(49%), 철강(1,269%), 완구 및 운동기구(19%)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함. 한편, 2022년 상반기 베트남은 영국에 29억 달러 규모를 수출했으며,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억 7,250만 달러인 것으로 드러남.

[Nhan Dan, 7. 10]

▶ 베트남 정부, 구글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 및 벌금 징수

호찌민시 세무국은 구글을 통하여 소득을 얻은 38명의 개인으로부터 세금 및 체납 벌금 약 725만 달러를 징수 했으며, 3개 기업에게 1,400만 달러를 징수했다고 밝힘. 또한 베트남에서 YouTube채널을 관리하는 일부 구글 파트너사를 조사하여 이들로부터 104만 달러의 세금 및 벌금을 징수함. 재무부는 앞서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올 4월까지 총 1억 9,290달러 규모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약 8,580만 달러, 구글은 약 8,150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790만 달러 규모의 세금을 납부함.

[Tuoi Tre, 7. 10]



▶ 베트남 부동산 투명도 ↑ ...4계단 오른 세계 56위 진입

라살자산운용(LaSalle Investment Management)과 JLL의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기존보다 4계단 오른 세계 56위에 올랐음. 라살자산운용과 JLL은, 이러한 베트남의 순위 상승의 이유는 베트남 정부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 8%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덕분이라고 전함.

[Vietnam News, 7. 8]

▶ 샤오미(Xiaomi), 베트남에서 첫 스마트폰 생산

현지 언론사인 뚜오이쩌는 중국 언론사의 보도를 빌어 중국의 가전기업 샤오미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에서 샤오미 스마트폰 생산공장을 가동한 이래 첫 완성품을 유통했다고 전함. 이는 샤오미의 직접 진출은 아니며, 홍콩을 본사로 둔 샤오미의 협력업체인 DBG Technology의 타이응웬 공장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밝힘.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전자제품 생산의 허브로 자리잡아 왔으며 특히 2021년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제조한 스마트폰 수출액은 575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함.

[Tuoi Tre, 7. 7]

▶ 베트남, 2022년 인구의 70% 은행 계좌 보유 목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올해 말까지 베트남 15세이상 국민의 65~70%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움. 이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2022년 은행부문 디지털 혁신 계획 수립'(No. 1097/QD- NHNN) 결정서의 일부임. 또한 동 결정서는 중앙은행 온라인 서비스를 100% 전국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털에 통합하고, 80%의 은행 및 금융문제 온라인 해결 비율 달성, 국영은행 관련 행정절차 100% 온라인 처리 등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SBV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핀테크 운영감독에 대한 정부 법령 초안을 작성하고 온라인 행정절차 신청 및 처리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모든 과정을 국민 만족도 평가 시스템에 통합하여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계획임.

* 참고자료: [베트남 중앙은행\(SBV\) 디지털 혁신 계획\(No.1097/QD-NHNN\)](#)

[Hanoi Times, 7. 6]

▶ 삼성엔지니어링, 베트남 수처리 기업 DNP WATER 지분 24%, 4,100만 달러에 인수

삼성엔지니어링은 7월 5일 베트남 수처리기업인 DNP Water의 지분 24%를 4,100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함. 이번 인수로 인하여 DNP Water의 지분구조는 DNP 홀딩스 53%, 삼성엔지니어링 24%, 기타 23%로 구성됨. DNP Water는 베트남 현지 상수도 사업에서 최대 수처리 능력을 가진 민간 수처리 회사로서 2017년 플라스틱 배관 전문업체인 동나이플라스틱(DNP Group)에서 분사한 이후, 민영화된 상수도 자산을 매입하고 신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삼성엔지니어링은 수처리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글로벌 기술 전문성을 무기로 베트남 상하수처리사업은 물론 주변 아세안 국가에도 진출할 계획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7. 5]



▶ 한국-베트남 총리, 양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전화 논의

베트남 팜 민 쯐 총리와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5일 전화 통화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양자 관계 발전 방법에 대해 논의함. 팜 민 쯐 총리는 베트남이 독립, 자립, 대외관계의 다양화 및 다각화라는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밝혔으며 베트남은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바란다고 언급함. 한덕수 총리는 베트남의 우수한 코로나 19 통제 능력과 코로나19중에도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에 축하를 보내고, 한국 역시 베트남을 최고의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긴다고 화답함. 한 총리는 한국 투자자 및 국민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한국 기업이 조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베트남 정부에 감사 표명함. 양측은 2022년 양국 수교 30주년 행사 개최에 있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고 2023년까지 교역액을 1,000억 달러,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움. 또한 한국 기업이 디지털 기술, 전자, 재생에너지, 베트남 인프라 개발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며 노동, 관광, 인적 교류, 문화교류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베트남 정부포털, 7. 5]

▶ 베트남 기획투자부, 2022년 경제성장률 7% 예상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2022년 한 해 경제성장률이 국회가 당초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5% 보다 0.5%p 상향된 7.0%로 전망 된다고 밝힘. 그러나 만약 베트남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7.0%로 상향 조정한다면 3분기에는 9%, 4분기에는 6.4%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함. 앞서 베트남은 2분기 성장률을 7.72%로 잠정 집계하고,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2분기 성장률을 보였다고 발표함. 올해 1분기까지 주요 기관 및 해외 은행의 경우 베트남의 2022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세계은행 5.5%, HSBC 6.5%, 스탠다드차타드 6.7%로 전망한 바 있음.

[베트남 정부포털, 7. 4]

▶ 하노이시, 2022년 상반기 약 11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

통계청은 2022년 1분기 동안 하노이시가 작년 1분기 대비 21.4% 증가한 약 11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고함. 2019년 상반기에는 9만 5,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8만 500개, 2021년 상반기에는 9만 7,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과 대비하면 올해 상반기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 취업자 수는 약 37.8% 증가함. 하노이시 고용서비스센터는 올해 상반기 북부지역에서 124회의 취업행사를 개최했으며 2만 2,300명을 인터뷰 하고 약 7,800명을 고용했다고 밝힘. 하노이 고용서비스센터는 노동부 지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국가 공무원포털에 실업급여 정산 절차를 적용한다고 보고함. (공무원 포털 사이트 : <http://dichvucong.gov.vn>)

[Nhan Dan, 6. 30]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Vinh Phuc 폐기물처리장 건설투자
 - Dung Quat Refinery Expansion and Upgrading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inseul_y@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Vinh Phuc 폐기물처리장 건설투자

발주처	○ 기관명 : Vinh Phuc IPA
프로젝트	○ 현장위치 : Vinh Phuc성 Binh Xuyen군 ○ 규모 : 약 57 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투자자 선정 중 ○ 세부내용 - Area : 8.5ha - Capacity : 300~500 ton/day

- Dung Quat Refinery Expansion and Upgrading

발주처	○ 기관명 : Vietnam Oil and Gas Group
프로젝트	○ 현장위치 : Quang Ngai성 ○ 규모 : 약 1,200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자원 : 발주처 펀딩 등 ○ 프로젝트 단계 : 2022년 4분기 입찰 예정 ○ 세부내용 - Capa 확대 : 148,000 barrels/day → 171,000~192,000 barrels/day



대한상사중재원(KCAB)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하노이사무소 허승원 소장

■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66년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내 국제상사 중재위원회 발족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주요 기능은(중재법 제40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아래와 같다.

-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해결(중재, 조정, 알선)
-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예방(상담, 클레임 예방 강좌)
- 중재에 관한 국제협력, 조사연구, 홍보

■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 소개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는 베트남 법무부로부터 최초로 정식인가를 받은 유일한 외국 중재 기관으로 2019년 11월 하노이사무소의 업무를 개시했다. 중재원 하노이사무소는 미국 LA 사무소와 중국 상해사무소를 잇는 3번째 중재원 해외사무소이다. 중재원 하노이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 제도의 홍보

기업, 공공기관, 협회 등 대상 중재 설명회·강좌 개최하여 베트남에 진출을 고려하거나 진출한 기업에 국제적 효력을 가진 중재 제도에 대한 활용법을 안내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분쟁 상담 업무

베트남 현지에서 또는 한국 국내에서 베트남 거래처를 상대로 사업을 이어 나가며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각 케이스 별 솔루션을 제공한다.

셋째, 계약서 검토

중재원 해외사무소에서만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계약서 사전 검토를 통해 분쟁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준다.

이 모든 업무는 무료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 **최근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의 업무 현황**

코로나 이후 한-베 교류가 활발해지고 사업 영역도 넓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 봉쇄가 풀리기 직전부터 중재원 하노이사무소는 건설협회 대상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현재 베트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 및 예방법을 소개함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였다. 코로나 봉쇄가 풀리며 중재원 하노이사무소도 활기찬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2022년 3월과 5월에는 베트남 중북부와 중남부 지역에서 열리는 민관합동 팀코리아 MEET KOREA 행사에 상담부스 운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사업 중 겪는 애로사항을 상담하며 중재원의 기능과 역할 및 중재제도 대해 알릴 수 있었다. 또 5월 26일부터 3일간 호치민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행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중재원 하노이사무소는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수출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투자를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 **중재원 하노이사무소의 향후 계획**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있고 또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기회의 땅인 만큼 분쟁 발생 건수도 더해가고 있다. 중재원 하노이사무소는 베트남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업의 리스크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조사, 연구 중에 있다. 또한, 기진출한 우리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법에 대한 사후적 제도 안내로 우리 기업이 마음 편히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노이법대 대학원생 대상 웨비나(중재원 사무소 방문)



한-베트남 비즈니스·투자 웨비나



MOU 체결식(KBIZ-중재원-무보)



MOU 체결식(KBIZ-중재원-무보)



“한국의 명품 아파트,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GS건설 조승열 법인장 인터뷰



조승열 법인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GS건설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BT(Build-Transfer) 사업인데요. 호치민시 내부 간선도로 등을 짓고 그 대가로 택지 등 부지를 얻는 방식이다 보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 혹은 만족스러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2004년경 베트남에 개발사업 진출을 본사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사업대상지로 베트남만 검토한 것은 아니고 중국, 태국, 카자흐스탄 같은데도 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 지정학적인 위치, 인구수와 인구구조 및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 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질적인 측면까지 한국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이 최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베트남을 제2의 한국 시장으로 키워보자”라는 마음에서 BT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탄손녇-빈로이 순환도로는 여러 절차를 거쳐 2008년에 착공을 해서 2016년에 완공을 한 뒤에 베트남 측에 핸드오버를 시켰습니다. 그때 대단했었죠. 이영애씨도 초빙해가지고 광고도 했었고 직원들의 자부심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개발 사업자로서 참여해서 도로 놓고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지금 현재까지도 신문 등 현지언론에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주변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는게 기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했구나. 여기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좀 증진 시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합의를 다 하고 승인을 받고 했던 행위들이 몇 년이 지난 지금 부정당하기도 하거든요. 자꾸 시간을 끌면서 정산이 안 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좀 이상하게 헤어지니까 그 부분이 항상 좀 아쉽구요. 대관업무나 행정의 불투명성 혹은 불확실성 같은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2008년 GS건설이 후원하고 있는 베트남 고아원을 방문한 배우 이영애 님>



코로나 이후 회사 운영 방식이나 사업 방식에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법인이 건설·디벨로먼트 파트도 있지만 제조업 영역도 있거든요. 정확히는 건설 자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요 자재를 직접 소싱하는 영역인데요. 건설·디벨로먼트 파트도 마찬가지로 건설자재업 파트도 비슷한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력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덜 쓰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당장 적용은 어렵더라도 조금씩 공장을 스마트하게 운영해 보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또한 원부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협력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무시하고 계약대로 하자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구요. 이런 어려운 점을 좀 나이스하게 넘어가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건설 시장 상황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법인 특성상 호치민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호치민 상황을 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감사 정국이 시작되면서 사실 분양 승인이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 승인이 나고 착공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분양 승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분양 승인된 세대수가 한국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천만 인구가 사는 이 도시에 분양 승인된 세대수가 작년엔 고작 14,000세대, 재작년에는 17,000세대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저희 GS 건설로 말하면 2~3개 프로젝트만 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저희 회사만 해도 한 해에 30,000 세대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대형건설사하고 중소건설사를 합치면 한 해에 30만호에서 50만호를 전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전체 분양 세대수가 한국의 10분의 1수준인거죠.

더구나 베트남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승인 권한 및 절차가 열기설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베트남 로컬 건설사들도 인허가 승인과 프로젝트의 개시 및 종료 일정을 확인하지 못 하는 구조입니다. 한편 권리관계도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토지보상 절차도 복잡하지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력만 있으면 땅을 구매하고 빌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파트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는 있지만 점차 인기가 확산되고 있구요. 조금 첨언하면 베트남에서는 아파트라는데 환금성도 조금 떨어지고 한국에 비해서 매력 없다는 평가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어차피 땅은 한정돼 있고 하니 향후에는 아파트가 주요한 거주공간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좋게 보고 있구요. 이 대목에서 한국 기업에 좀 유리한 점은 한국의 아파트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분들을 한국에 데려가서 송도 신도시나 자이, 래미안 같은 아파트를 보여주면 정말 감탄을 합니다. 일반 서민뿐 아니라 현지 디벨로퍼들에게도 한국이 아파트를 정말 잘 짓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업체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온·오프라인을 다 활용해서 실수요자를 끌어들이는다면 베트남은 분명히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로, 철도나 교량 같은 인프라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베트남은 좀 운이 따르는 나라인데 지금 각 국에서 ODA등으로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잘 활용하면 좋는데 아직까지는 정산문제 등 선진적이지 못한 관행으로 잠재력에 비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발주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있게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다들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불신도 좀 팽배해 있구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로컬업체 외에는 인프라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인프라 확충은 꼭 필요하구요.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라는 개념에 맞추어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주변 상권 개발이라는 방향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고속철도나 고속도로도 개발·확충이 되어야겠지요. 이런 대규모 개발에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 스마트시티 현황은 어떤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시티라는데 사실은 굉장히 난제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포장이 잘 된 어떤 선전 문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성립을 하려면 3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GDI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 Government, Developer, ICT를 줄인 말입니다. 상당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인프라를 어떻게 깔며 정보통신은 어떻게 접목하고 건물은 어떻게 스마트하게 앉힐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 되어 되죠. 특히나 관의 역할이 엄청 큼니다. 전체 땅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다른 도시 및 지역간의 연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디벨로퍼 혼자 고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3자가 다 같이 합심해야 하는 거죠.

한국조차도 아직 스마트시티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역이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부분을 감안하면 베트남에서 홍보하는 스마트시티라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시티 모델에 대해서도 고민이 더 필요하고 또 방향이 정해지면 현재의 규제나 프로세스를 상당부분 개선해야 하거든요. 다만 빈그룹이나 노바그룹 같이 큰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거대그룹은 지속적인 투입을 해 나간다면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에 근접한 결과물을 낼 수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냐베 신도시 개발, 투티엠 신도시 주상복합 공급 외에 혹시 추가로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냐베 신도시 개발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투티엠을 했지요. 또 9군에 있는 투득신도시에 한 92ha정도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 곳에도 아파트, 빌라 및 상업시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당장은 추가 프로젝트가 없는데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리소스도 좀 따져봐야 되고 베트남의 아파트 시장 발전 속도도 좀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사업에 대해 현지 디벨로퍼하고 협업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티엠 Zeit River>





냐베신도시에다가 국제학교도 유치 하셨던데요

네. 채드윅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송도에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친숙한 학교입니다. 냐베에 저희가 ‘자이트가이스트’라는 타운을 개발하고 있는만큼 명문 국제학교 유치가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하노이에도 에코파크에 2023년 9월 이 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니 하노이에 하나 호치민에 하나씩 채드윅 국제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국제학교 입학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이 학교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관심 기업에게 알려주고 싶은 베트남의 매력 혹은 유의할 점 등은 무엇이 있을 까요?

저희 같은 건설업자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젊은 나라이고 인건비도 비교적 저렴하고 성장세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반면 어려운 점은 부지확보입니다. 외국 기업이 와서 부동산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지를 직접 살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땅을 사거나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불투명하기도 하고 또 시세보다 월등히 비싼 거래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부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절차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결국 한국에 비해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 시간이 월등히 많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S건설과 채드윅 국제학교간 업무협약>



<끝>



베트남 직원의 해외파견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지사장,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들어가며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본사와의 소통 제고 등 다양한 요구에서 베트남 직원들을 한국 또는 다른 해외지사로 파견을 보내고자 합니다. 단기간 워크샵 등이 라면 단기 비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파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노동보훈사회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채용한 베트남 직원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 계약에 근거한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파견에 관한 법률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규율하는 규정은 ‘Law on Vietnamese workers going to work abroad under contracts’(이하 ‘베트남 근로자 파견법’)가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이 외국으로 베트남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자의 능력 기술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 2항)

그렇다면 이렇게 직업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 파견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

위 베트남 근로자 파견법 제36조에 따르면, 파견대상 기업과 베트남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기업은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파견에 대한 적절한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 파견은 정식 근로계약서 및 연수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일정 기한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근로자 파견에 대해 명확한 업무내용, 역할 등을 명시 해야하며 파견 기업의 목적과 적합한 대상업체에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3. 베트남 직원의 파견 절차

그렇다면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하에서는 주요 사항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생을 파견하는 베트남기업과 연수생을 받는 외국기업간에 협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베트남 기업과 연수생 간의 계약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적절한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견 계약에 대해 성급 노동사회보훈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파견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 이는 성급 노동보훈사회국이 아닌 중앙 부서인 노동보훈사회부(MOLISA)의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승인서 발급 이후 직원을 파견하는 회사는 파견 전 파견대상 직원들에 대해 사전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파견에 필요한 사전 절차는 완료되며 이후 비자발급 등 업무를 진행하여 직원이 해외로 출국한 뒤 5영업일 이내에 이러한 직원 파견에 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4. 마치며

구체적으로 파견기간이 제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 규정은 90일 이내 또는 90일 이상으로만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 파견 외에 베트남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끝>



백지도 다시 보자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한국인 최OO 씨와 베트남인 탕 Thang (가명) 씨는 베트남에서 화장품 유통을 하기로 의기투합하고 함께 베트남에 회사를 설립했다. 마침 탕 씨 친척 소유의 복층 빌라가 있어 회사 사무실은 그 빌라의 1층에 마련했다. 공평하게 한다고 최 씨와 탕 씨는 50%씩 지분 투자를 하고, 모두 법적 대표자로 등록했다. 최 씨는 주로 베트남에서 인기 있을 만한 화장품을 한국에서 선별해 베트남으로 보내는 일을 했고, 탕 씨는 이 화장품을 베트남에서 파는 일을 했다. 최 씨가 베트남으로 보내는 화장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런데 최 씨가 주로 한국에 머무르다 보니 베트남에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에 공동으로 서명해야 할 때 최 씨가 베트남에 올 때까지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한국에 있던 최 씨가 단체 화장품 판매 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해 베트남 고객을 놓치는 경우까지 생기자 최 씨는 편의를 위해 탕 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백지위임장을 여러 장 써주고 한국에서의 업무에 몰두했다. 베트남에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백지위임장 덕에 예전 같았으면 지연되었을 베트남에서의 업무도 제시간에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자금이 바닥났다는 탕 씨 연락을 받고 최 씨는 깜짝 놀라 베트남으로 갔다. 최 씨와 탕 씨가 만든 회사는 탕 씨 친척 소유의 빌라에 시장가의 3배를 사무실 임차료로 내고 있었다. 최 씨의 백지위임장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체결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최 씨가 탕 씨에게 항의하자 탕 씨는 회사가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자신의 친척인 임대인의 손해가 막심하다며 오히려 큰소리였다.

베트남 투자 ·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기업은 최소 1인의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적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기업이 1인의 법적 대표자만 두었을 경우에는 그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에 거주하여야 하며, 베트남을 출국할 때에는 법적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다른 사람에게 문서로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법적 대표자는 여전히 위임한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한 사람 또는 다수의 법적 대표자를 둘 수 있다. 다수의 법적 대표자를 둔 경우에는 회사 정관에 법적 대표자의 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해야 한다.
- 위임장(委任狀, Giấy ủy quyền, Power Of Attorney, POA)에는 통상 위임인, 수임인, 위임사항을 기재한다. 이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나중에 보충하는 것을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이라고 한다.
- 백지위임장은 (1) 위임인과 위임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위임을 받는 대리인/수임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 의결권 행사에 대한 백지위임) 또는 (2) 위임인과 수임인은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사항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중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면 위임장으로서 유효하게 된다.
- 위임장에는 구체적으로 위임사항을 한정해서 기재해야 수임인이 권한을 남용하기가 어렵다. 모든 법률 행위 일체를 위임하는 백지위임장의 형식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끝>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김태윤 관세사

< 베트남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제도 >

Q : FTA 목적이 아닌 일반목적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베트남 어떤 기관에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A : 원산지증명서는 FTA 목적의 특혜원산지증명서와 일반 목적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FTA 목적의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하여 사용되지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반덤핑, 공공목적 제출, 경유증빙, 제조자의 규범준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관련 법률인 Circular 05/2018/TT-BCT, Decree No. 31/2018/ND-CP에 따라서,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베트남에 우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모든 국가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양식(Form B)으로 발급되는 서류이며, 원칙상 수출시점에 발급해야하고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문구 기재하여 소급발급도 가능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미소기준), 부가가치기준(집적법, 공제법)으로 구성되는데, HS코드별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이 상이합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시행규칙 05/2018/TT-BCP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1단계 : 산업무역부의 웹사이트 <http://comis.covcci.com.vn/>에서 산업무역부의 원산지 관리 및 인증 시스템의 전자 인증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보를 신고합니다. VCCI 또는 C/O 발급 사무소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2) 2단계 : VCCI 웹사이트 <http://comis.covcci.com.vn/>에서 C/O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직접 제출, 우편제출 가능)
- 3) 3단계 : VCCI는 신청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다음 중 하나를 통보합니다.
C/O 발행 / 추가서류 요구(보충서류 명시) / 문서의 재검토 요구 / 발급 거부 / 생산시설 현장검사
- 4) 4단계 : VCCI 담당자가 종이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고, C/O를 배포합니다.



< 한국-베트남 간 FTA의 원산지 검증(조사) 제도 >

Q : : 최근 한국세관에서 베트남으로 원산지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전반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제도에 기반합니다. 다시 말해, 납세자 혹은 신청인이 신청한 서류에 기재되어 신고된 각 내용은 진위여부를 사후에 검증(조사, 심사)하고, 실무단계에서의 신청, 발급, 신고 등은 확정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면서 각종 제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공무원이 이를 모두 심사하고 검토하여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입신고 당시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요식성만 확인하고 그 진위여부나 내용의 진위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항상 사후에 원산지검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서류를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자체검증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특혜를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계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하는 것은 원산지 검증이라고 합니다.

한-베트남 FTA는 기본적으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여, 수입국 세관당국이 상대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면 상대국 정부가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국 세관당국이 직접 방문하여 검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원산지 검증은 HS코드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 적용신청내용, 직접운송원칙, 서류보관 등의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원산지 검증을 위해서 수출입 당사자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로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수출자는 생산에 관련한 보관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사본, 증명서 발급신청서류 사본, 수출신고필증,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수출거래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서류 보관기간은 FTA 협정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원산지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 그 중에서도 직접검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제조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 수출신고에 사용되는 수출거래유형 코드 >

Q : 수출물품의 거래형태별로 통관 시 신고하는 코드유형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관세총국 결정문 1357/QĐ-TCHQ에 따라서, 2021년 6월 1일부로 VNACCS의 수출입 거래유형 코드에 관한 관세총국 공문(No. 2765/TCHQ-GSQL)을 대체하여 새로운 거래유형 코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는 해당 결정문에 명시된 코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유형과 다른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추징,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수출 거래유형 코드를 참고하여 정확한 수출입신고를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래유형 코드	혼합 신고	코드명칭	사용지침	비고
B11	X	일반 상업적 수출	다음의 경우에 사용 : a) 외국·비관세구역·EPE 기업으로 수출판매. 또는, 매매계약 하에서 외국인계약자의 지시로 내국수출(On-Spot Export) b) 외국인투자기업(EPE 기업 포함)이 국내구매한 물품을 수출 (자기 책임 하의 상업적 수출)	
B12		일시수출 후 결정된 수출	다음의 경우에 사용 : a) 기업이 물품을 일시 수출하였으나, 외국·비관세구역·EPE 기업에서 판매, 증여, 사용 목적으로 용도변경되고, 재수입되지 않는 경우 b) 외국·비관세구역·EPE기업에 임가공을 위탁하였으나 외국·비관세구역·EPE기업에서 판매, 증여, 사용 목적으로 용도변경되고, 재수입되지 않는 경우	G61에 의하여 일시수출된 경우 사용
B13	X	수입된 물품의 수출	다음의 경우에 사용 : a) 수입된 물품을 (미가공 상태로) 외국·비관세구역·EPE기업으로 수출하거나, 매매계약 하에서 외국인계약자의 지시로 내국수출(On-Spot Export) b) EPE 가 수책관리하는 기계장비(면세 받은 기계장비)가 외국 또는 EPE 기업으로 수출판매되는 형태 c) 임가공, 수출제조, EPE 기업의 생산 후 잉여 원재료, 소모품을 외국·비관세구역·EPE기업으로 수출하거나, 매매계약 하에서 외국인계약자의 지시로 내국수출(On-Spot Export)	
E42	X	EPE기업의 수출제품	EPE 기업의 제품이 외국으로 또는 내국수출을 통하여 수출되는 경우	내국수출의 경우 보세창고코드, 내부 관리 코드 등 내국수출입(XNK tại chỗ)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함



거래유형 코드	혼합 신고	코드명칭	사용지침	비고
E52	X	외국인계약자에게 수출되는 임가공 제품	다음의 경우에 사용 : a) 임가공된 제품을 외국의 임가공 위탁자에게 수출하거나,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수출 b) 원자재를 자체조달하여 생산한 임가공 제품 수출 c) 임가공된 제품을 EPE 기업, 비관세구역으로 다시 수출 d) 외국 항공사의 출국 항공편에 음식물 수출	EPE기업, 비관세구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보세창고코드, 내부 관리코드 등 내국수출입(XNK tại chỗ)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함.
E54	X	특정 임가공 계약에서 다른 임가공계약으로 원재료 이전	원재료, 소모품을 하나의 임가공계약에서 다른 임가공계약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 기계장비의 이전은 제외)	기계장비의 용도변경은 일시수입 처리하고, 다시 G23 코드로 신고. 이 경우, 보세창고코드, 내부 관리코드 등 내국수출입(XNK tại chỗ) 관련 정보 신고해야 함.
E62	X	수출제조된 제품 수출	다음의 경우에 사용 : a)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 원재료로 제조된 제품을 외국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외국인계약자에게 수출되거나, 실제로는 베트남 내에서 인도하는 내국수출 포함) b) 베트남 항공사의 항공기에 음식물 수출	내국수출의 경우, 보세창고코드, 내부 관리코드 등 내국수출입(XNK tại chỗ) 관련 정보 신고해야 함.
E82	X	외국에서의 임가공을 위하여 원재료, 소모품 수출	베트남 기업이 '외국으로 임가공 위탁 또는 EPE에 임가공 위탁을 위하여' 원재료, 소모품을 수출하는 경우. 기계장비를 일시수출하는 경우 G61코드를 사용해야 함.	
G21	X	재수출 목적으로 일시수입된 물품의 재수출	재수출 목적으로 일시수입된 물품(G11로 수입된 경우)의 재수출. 재수출을 위한 석유제품 스왑(Swap)을 포함	기업은 베트남에서의 수입물품 보유기간(재수출 기한)을 결정하여 수출입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고사항을 수정보완해야 함.
G22	X	기간이 한정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수입된 기계장비의 재수출	재수출 목적으로 일시수입된 기계장비, 도구, 운송수단 (G12로 수입된 경우)의 재수출.	기업은 베트남에서의 수입물품 보유기간(재수출 기한)을 결정하여 수출입신고서에 신고해야 함. 만약,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고사항을 수정보완해야 함.
G23	X	일시 면세수입 물품의 재수출	G13, A44 코드로 일시수입된 물품의 재수출.	
G24	X	기타 재수출	G14 코드로 일시수입된 물품의 재수출.	



거래유형 코드	혼합 신고	코드명칭	사용지침	비고
G61	X	일시 수출	<p>다음의 경우에 사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외국, 비관세구역으로 일시수출되거나, 비관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일시수출입 조건 하에 일시수출되는 경우 b) 베트남 정부에 의해 면세받은 개인이 일시수출하는 경우 c) 전시회, 박람회, 제품 소개, 스포츠, 문화, 예술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하기 위해 일시수출되는 경우 d) 일정 기간 동안 직무 수행, 해외에서의 아웃소싱(임가공) 활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기계장비 및 전문용품 e) 보증, 수리, 교체를 위하여 일시수출되는 물품 f) 수출입 물품의 보관수단으로 일시수출(선반, 상자, 용기 등) g) 생산 및 건설 프로젝트 수행 또는 시험(test) 목적으로 일시수출되는 기계장비, 건설용 중장비, 주형, 샘플 h) 그 밖의 일시수출 물품 	
C12	X	보세창고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p>다음의 경우에 사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창고에서 외국 혹은 비관세구역으로 반출되는 물품 - 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창고로 반출되는 물품 	
C22	X	비관세 구역에서 반출되는 물품	비관세구역(EPE 기업, 보세창고 제외)에서 외국으로 수출되거나, 국내시장으로 반출되는 경우	
H21	X	기타 수출	<p>다음의 경우에 사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베트남의 기업, 개인이 외국의 기업, 개인에 증여, 기증하는 물품의 수출 b) 베트남에 있는 외교공관, 국제기구 또는 해당 기관, 기구의 직원이 수출하는 물품 c) 단체, 개인이 수출하는 동산 d) 인도적 원조, 환불 불가한 원조 물품 e) 샘플(견품) f) 출국하는 자의 개인화물 중 선하증권이 발행된 물품, 출국하는 자의 여행자 수하물 중 면세범위 초과물품 g) 상기 규정되지 않은 기타 수출 	



2022 베트남 비즈니스 팁

KOTRA

- 수록내용 : 현지 전문가(노동, 금융, 법률 등)가 직접 기고한 2022년의 주요 비즈니스 주안점을 개별 칼럼 형태로 수록 (37개 항목)
 - (투자) 지적재산권, 프로젝트 오피스 청산, 자본금 및 토지관련사항, 2022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동향, 투자프로젝트 이행 위반에 대한 쟁점, 산업 부동산 계약에 대한 법적 쟁점, 베트남 부동산 개발 절차, 합작 법인 설립, 담보설정 및 처분 등
 - (노동) 대표사무소 납세업무, 노조설립 관련 법안, 포괄임금제 노동 등
 - (세무) 2022 세무관련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등
 - (금융) 꼼꼼히 챙겨보는 금융비용, 진출기업의 사용계좌 구분 등
 - (산업) 자동차, 전력, 섬유·의류, 제약, 전자, 물류, 스타트업 & 벤처캐피탈 등
 - (에피소드) 투자 에피소드 및 주안점



2022 베트남 비즈니스 팁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내 보고서\(심층\)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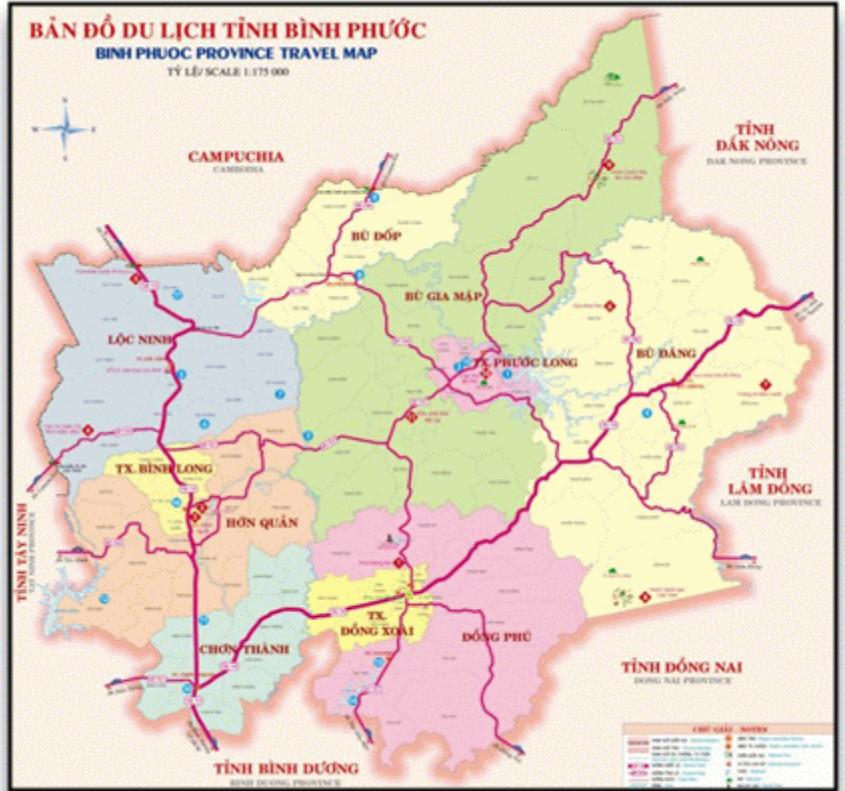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 - 빈프억성

□ 빈프억(Binh Phuoc)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6,876.8km² • 인구 : 1.1백만 명 • 도시거주 비율 : 23.7%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프억성은 북쪽으로는 캄보디아와 닥농(Dak Nong)성, 동쪽으로는 램동(Lam Dong)성 및 동나이(Dong Nai)성, 서쪽으로는 떠이닝(Tay Ninh)성, 남쪽으로는 빈즈엉(Binh Duong)성과 인접해 있음 • 빈프억성은 호치민시에서 110km, 동나이성의 롱타잉(Long Thanh)공항에서 143km, 동나이 항구에서 166km 떨어져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번, 14번 국도 및 741번 성도로는 빈프억성을 관통하고 빈프억성을 인근 지방 및 지역과 연결하여 이동 및 화물 운송을 지원함 • 빈프억성에는 263km의 국경선, 1개의 국제국경관문이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GDP 성장률 : 6.32% ▪ 성 1인당 GDP : US 3,256 달러/년, 전년대비 : 7.51% 증가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 US 33.17억 달러 / 총 수입액 : US 29.6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 공업/건설업(6.73%), 서비스업(-2.58%), 농수산업(3.81%)
산업구조('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건설업 : 43.4%, 서비스업 : 32.8%, 농수산업 : 23.8%
노무여건('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 58% ▪ 노동연령 인구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 52%
최저임금('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수아이(Dong Xoai)시, 전타잉(Chon Thanh)현, 동푸(Dong Phu)현 : VND 4,160,000 = US 180 달러(2급지) ▪ 프억롱(Phuoc Long)군, 빈롱(Binh Long)군, 헌판(Hon Quan)현, 록닝(Loc Ninh)현, 푸리엥(Phu Rieng)현 : VND 3,640,000 = US 158 달러(3급지) ▪ 부당(Bu Dang)현, 부돗(Bu Dop)현, 부자맵(Bu Gia Map)현 : VND 3,250,000 = US 141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1.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프억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379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37억 달러 규모 ▪ (한국) 104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8.93억 달러를 투자하여, 빈프억성에 투자한 18개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2위, 투자금액 기준으로 1위 규모



□ 투자환경



빈프억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 주요 도로

- 13번 국도: 길이 79.9km, 폭 16-24m, 4-5 레인, 호치민시, 빈즈엉성, 빈프억성의 전타잉현, 빈롱군 및 록닝현을 관통하고 호아르(Hoa Lu) 국제국경관문까지 이어지며, 캄보디아의 7번 국도와 연결됨
- 14번 국도: 길이 106km, 꽝찌(Quang Tri)성, 트어티엔후에(Thua Thien-Hue)성, 꽝남(Quang Nam)성, 서부고원 지방성들[떠이응우옌(Tay Nguyen) 지역] 및 빈프억성을 포함한 8개 성을 관통하고 있음
- 741번 성도로: 길이 198km, 빈프억성의 간선도로이며, 빈즈엉성 및 떠이응우옌 지역과 연결하여 화물 운송을 지원함

- 빈프억성은 2030년까지 다음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임

- 호치민시-투자우엇(Thu Dau Mot)시-전타잉현 고속도로 프로젝트
- 14번 국도[동수아이-전타잉 구간] 확장 프로젝트
- 호치민로드[전타잉-득화(Duc Hoa) 구간] 프로젝트
- 아시아 횡단 철도[지안(Di An)-록닝-캄보디아 구간] 프로젝트



○ 관광

빈프억성의 관광환경은 청결하고 목가적이며, 광대한 숲 및 많은 자연 경관으로 유명함. 그 외에 파티엣(Ta Thiet) 기지, 범버(Bom Bo) 마을, 부자몹 국립공원, 불락(Bu Lach) 사바나, 부라(Ba Ra) 케이블카, 미레(My Le) 생태관광지, 닥마이(Dac Mai) 폭포, 수이깜(Suoi Cam) 호수 등과 같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잠재력이 많은 유적지들을 보유하고 있음



범버(Bom Bo)마을



불락(Bu Lach) 사바나



부자몹(Bu Gia Map) 국립공원

○ 천연자원

- 토지 : 총 자연 면적 685,599ha에 13가지 유형의 토양 및 7개의 주요 토양 그룹이 있음
- 산림 : 총 산림 면적은 351,629ha으로 빈프억성 전체 면적의 51.3%를 차지하며, 지역의 생태환경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천의 흐름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
- 광산 : 91개의 광산 및 광산지가 있으며 비료 원료, 금속, 비금속과 보석의 4개 그룹에 속하는 20가지 유형의 광물이 있음. 그중 석재, 모래, 점토, 라테라이트(laterite), 포졸란(pozzolan), 고령토, 석회암과 같은 건축 자재는 빈프억성의 가장 유망하고 중요한 광물들임



○ 공단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동력

현재 빈프억성에는 총 면적 4,686ha의 13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 중 11개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되고 있음. 7개의 공단은 100% 입주되었으며, 나머지 6개 공단의 평균 입주율은 38%임.

베트남 총리는 빈프억성의 3개 공단 확장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30년까지 빈프억성은 지속적으로 신규 계획을 설립하여 총 약 9,300ha의 면적으로 산업단지를 확장할 예정임. 빈프억성의 호아르(Hoa Lu) 국제국경관문은 캄보디아와 인접하여 라오스 및 태국과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28,300ha 이상이고 중심 지역은 3,500ha 이상의 면적을 보유함.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 법적 근거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구분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산업단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록닝현, 부당현, 부돛현, 부자법현, 푸리엥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 전체 기간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 11년간 계속 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현판현, 전타잉, 동푸현, 프억롱군, 빈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 11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 7년간 계속 면제
국경경제 구역	호아르(Hoa Lu) 국경경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최대 19년간 계속 면제 • 특별 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 전체 기간 면제 • 30%~50% 토지세 면제(투자 분야, 성격에 따름)



- 수입세 :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Đ-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빈프억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379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37억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음

○ 한국계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빈프억성 내 한국투자는 104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8.93억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으며, 빈프억성에 투자한 18개의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 2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위 규모임

○ 빈프억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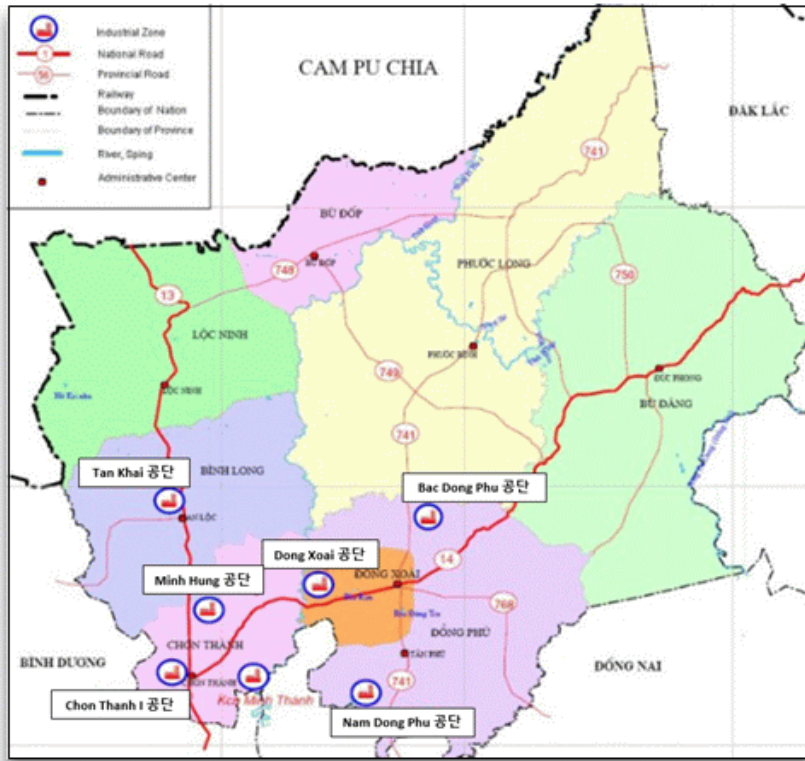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VRG Dongwha MDF Joint Stock Company	MDF 목재 가공	베트남 - 한국 합작 투자	228백만
2	Long Fa Co., Ltd	신발, 신발 액세서리 생산, 가공	영국	150백만
3	Freewell Co., Ltd	신발 생산 및 가공	영국	125백만
4	CPV Food Co., Ltd	육류 및 육류 제품 가공 및 보관	태국	110.29백만
5	Hayat Kimya Viet Nam Co., Ltd	아기 기저귀, 생리대, 물티슈 생산 수출권, 수입권, 도매유통권 수행	네덜란드	108.17백만
6	Shyang Ying Co., Ltd	신발과 반제품 생산 및 가공	사모아	80백만
7	C&T Vina Co., Ltd	직조, 직물 염색 및 의류	한국	77백만
8	New Hope Singapore Ltd	양돈장 및 판흥(Tan Hung) 사료 생산 공장	싱가포르	75백만
9	민흥(Minh Hung) Paper Joint Stock Company	종이 재활용	베트남 - 중국 합작 투자	72.72백만
10	Jason Furniture Vietnam Co., Ltd	침대, 벽장, 테이블과 의자, 소파 등 생산 및 가공	중국	70백만



□ 공단 현황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 년도	면적 (ha)	주요 정보	투자자 / 개발사
1	박동푸(Bac Dong Phu) - 동푸현	2009	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100% 임대료: 75USD/m²/년 	Bac Dong Phu Industrial Park Joint Stock Company (bacdongphu.vn)
2	남동푸(Nam Dong Phu) - 동푸현	2008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100% 	Bac Dong Phu Industrial Park Joint Stock Company (bacdongphu.vn)
3	전타잉 I - 전타잉현	2004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100% 	Chon Thanh Co., Ltd
4	전타잉 II - 전타잉현	2002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100% 	Chon Thanh Co., Ltd
5	Becamex 빈프억 - 전타잉현	2008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23% 임대료: 80-100USD/m²/년 	Becamex IDC Corporation (becamexbinhphuoc.com.vn)
6	민흥(Minh Hung) -한국 - 전타잉현	2007	39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100% 	C&N Vina Co., Ltd (cnvnkip.com)
7	민흥 III - 전타잉현	2008	293.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1단계): 99.7% 	Binh Long Rubber Industrial park Joint Stock Company (blip.vn)
8	동수아이 I - 동수아이현	2006	153.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100% 	빈프억성 공단 관리위원회
9	동수아이 II - 동수아이현	2009	8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80% 임대료: 65-70USD/m²/년 	Quang Minh Tien Joint Stock Company
10	동수아이III - 동수아이현	2009	12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96% 임대료: 60USD/m²/년 	Binh Phuoc Investment-Housing Trading Joint Stock Company
11	민흥 시키코(Minh Hung Sikico) - 현판현	2016	6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40% 임대료: 투자자와 직접 협의 	Minh Hung- Sikico Industrial JSC (minhhungsikico.vn)
12	탄카이(Tan Khai) II - 현판현	2009	3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건설중 	HHP Investment and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
13	비엠키에우(Viet Kieu) - 현판현	2009	103.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40% 임대료: 70USD/m²/년 	Minh Khang Property Deverlopment Company (vietkieu-industrialpark.com)



빈프억성의 일부 산업단지 위치

□ 투자 유망분야

빈프억성은 첨단 기술 관련된 분야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방향은 제조·가공, 제조 지원산업, 첨단 농업, 전자 및 전자 부품 생산, 기계 산업, 무역 및 서비스 구역 건설, 의료, 교육 등 분야의 프로젝트들임

□ 빈프억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투자, 무역 및 관광 진흥센터	Mr. Tran Quoc Duy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713-818-666 Email: p.xuctiendautu@gmail.com Website: binhphuocittpc.gov.vn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Mr. Nguyen Minh Chien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713-500-918 Email: bqlkkt@binhphuoc.gov.vn Website: binhphuoc.gov.vn/vi/bqlkkt
투자기획청	Mr. Vo Sa 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713-887-088 Email: sav.skhdt@binhphuoc.gov.vn Website: skhdtbinhphuoc.gov.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2. 6. 20 기준 누계		2022. 1. 1 ~ 6.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339	79,291	160	330.87	2,660.46
일본	4,873	65,098	82	432.3	1,057.59
중국	3,411	22,312	97	629.29	1,272.74
싱가포르	2,931	69,863	99	1,156.25	4,139.34
대만	2,859	35,920	31	329.78	594.88
홍콩	2,081	28,568	45	314.81	772.97
미국	1,169	10,875	36	129.82	231.46
버진아일랜드(영)	886	22,183	12	97.46	211.69
말레이시아	678	12,980	12	0.76	138.55
태국	658	13,129	14	38.1	182.64
네덜란드	392	13,570	14	18.81	647.01
기타	5,907	54,181	150	1,464.69	2,121.05
전체 합계	35,184	427,970	752	4,942.94	14,030.3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2. 6. 20 기준 누계		2022. 1. 1 ~ 6.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703	253,643.40	191	3,318.63	8,835.21
2	부동산경영	1,034	65,356.84	35	940.17	3,153.26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84	36,469.10	7	97.88	202.96
4	호텔, 외식서비스	903	12,751.18	9	1.71	50.49
5	건설	1,776	10,934.23	10	89.73	141.82
6	도소매; 유지보수	5,796	9,731.82	230	95.02	315.69
7	물류운수	944	5,984.61	23	140.13	226.05
8	채광	109	4,900.37	1	1.98	18.78
9	정보통신	2,564	4,806.09	94	108.66	442.58
10	교육, 양성	608	4,570.00	5	4.7	141.17
11	과학기술, 전문활동	3,911	4,256.34	124	99.84	408.5
12	농, 임, 수산	524	3,851.96	6	18.96	32.14
13	예술 오락	137	3,416.24	-	-	1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4	2,909.10	2	0.85	8.67
15	의료와 사회복지	151	1,742.59	-	-	5.45
16	행정, 지원 서비스	525	1,001.28	12	2.5	20.84
17	금융, 은행, 보험	80	912.62	2	22.1	23.45
18	기타서비스	144	720.92	1	0.1	2.31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5,184	427,969.78	752	4,942.94	14,030.3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9	2020	2021	2022.6(누계)
수 출	2,641.8	2,826.5	3,363.1	1,860.3
수 입	2,530.7	2,627	3,322.3	1,852.8
무역수지	111.1	199.5	40.8	7.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6(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378	51,183	57,537	29,171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35,925	44,576	50,828	27,680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303	27,193	38,344	21,208
섬유/직물제품	32,850	29,809	32,753	18,530
신발류	18,320	16,791	17,751	11,795
원목 및 목제품	10,647	12,371	14,809	8,396
철강제품	4,210	5,258	11,795	5,016
수송수단 및 부품	8,505	9,090	10,616	5,764
수산물	8,543	8,412	8,886	5,705
원사(Yarn)	4,176	3,736	5,612	2,775
기 타	71,332	74,235	87,379	49,991
합 계	264,189	282,654	336,310	186,03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6(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51,353	63,971	75,440	43,005
기계/플랜트 및 부품	36,748	37,251	46,296	22,46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4,615	16,645	21,434	10,278
의류(원단)	13,276	11,875	14,324	7,950
플라스틱 원료	8,991	8,397	11,685	6,757
각종 철강	9,507	8,066	11,523	6,972
기타 비금속	6,385	6,052	8,611	5,027
플라스틱 제품	6,538	7,274	7,959	4,171
화학제품	5,419	5,741	7,627	5,102
화학물질	5,128	5,016	7,735	4,493
기 타	95,110	92,412	119,600	69,070
합 계	253,070	262,700	332,234	185,28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6(누계)
1	미국	47,526	61,347	77,077	96,293	56,599
2	중국	41,268	41,414	48,905	56,009	26,171
3	한국	18,205	19,720	19,107	21,945	12,102
4	일본	18,851	20,413	19,284	20,128	11,378
5	홍콩	7,955	7,156	10,437	11,996	5,520
6	네덜란드	7,076	6,881	6,999	7,686	5,042
7	독일	6,869	6,555	6,644	7,286	4,371
8	인도	6,542	6,674	5,235	6,259	4,073
9	태국	5,494	5,272	4,917	6,161	3,641
10	영국	5,776	5,758	4,955	5,765	2,913
	기타	77,921	82,999	79,094	96,782	54,221
	합계	243,483	264,189	282,654	336,310	186,03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6(누계)
1	중국	65,438	75,452	84,187	109,874	61,124
2	한국	47,497	46,935	46,895	56,155	32,538
3	대만	13,228	15,173	16,701	20,772	12,126
4	일본	19,011	19,526	20,341	22,648	12,038
5	미국	12,753	14,365	13,713	15,270	7,546
6	태국	12,023	11,656	10,968	12,564	7,008
7	오스트레일리아	3,984	4,456	4,677	7,946	5,232
8	말레이시아	7,450	7,291	6,575	8,148	4,831
9	인도네시아	4,918	5,703	5,382	7,587	4,608
10	인도	4,147	4,538	4,435	6,950	3,709
	기타	46,238	47,975	48,826	64,320	34,528
	합계	236,687	253,070	262,700	332,234	185,28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누계)
수출	48,629(1.8)	48,178(-0.9)	48,510(0.7)	56,729(16.9)	31,868(23.3)
수입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13,504(16.4)
무역수지	28,997	27,107	27,931	32,763	18,364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6(누계)
반도체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6(22)	8,232(37.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909(20.9)	7,970(-10.5)	9,552(19.9)	12,050(26.1)	5,967(29.6)
석유 제품	1,976(-0.6)	2,196(11.2)	1,196(-45.5)	1,157(-3.2)	2,119(276.3)
합성수지	1,659(15.1)	1,624(-2.1)	1,615(-0.6)	2,415(49.5)	1,512(31.5)
무선통신기기	2,631(-19.9)	2,932(11.4)	3,460(18)	3,315(-4.2)	1,218(-22.5)
기구부품	2,332(-10.7)	2,230(-4.4)	2,241(0.5)	2,405(7.3)	1,161(8.7)
철강판	1,049(6.5)	1,157(10.4)	1,052(-9.1)	1,267(20.4)	630(5.4)
자동차부품	474(23.3)	668(40.9)	673(0.8)	924(37.3)	575(21.1)
플라스틱 제품	1,205(4.6)	1,210(0.4)	1,115(-7.8)	1,174(5.3)	554(2.0)
편직물	1,107(-1)	996(-10)	851(-14.6)	931(9.4)	455(-5.2)
기타	16,341	16,465	15,255	17,065	9,445
합계	48,622	48,178(-0.9)	48,511(0.7)	56,729(16.9)	31,868(23.3)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6(누계)
무선통신기기	4,838(22)	5,691(17.6)	4,980(-12.5)	5,579(12)	3,263(28.7)
의류	3,570(24.2)	3,646(2.1)	3,145(-13.7)	3,393(7.9)	1,612(8.6)
컴퓨터	539(-3.7)	679(25.9)	1,270(87.1)	1,659(30.6)	1,078(4.9)
신변잡화	980(23.1)	1,053(7.4)	1,029(-2.2)	984(-4.4)	615(-2.1)
목재류	793(55.1)	657(-17.1)	632(-3.9)	755(19.5)	496(30.1)
산업용 전기기기	417(31.5)	479(14.8)	574(20)	725(26.2)	466(28.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37(88.4)	1,197(5.2)	1,027(-14.2)	876(-14.7)	400(2.8)
반도체	396(5.8)	471(19.1)	561(18.9)	750(33.8)	371(8.8)
기구부품	445(-10.4)	512(15.1)	481(-5.9)	624(29.6)	324(19.5)
영상기기	364(-9.1)	356(-2)	406(14)	460(13.2)	258(-7.8)
기타	6,164	6,331	6,474	8,161	4,621
합계	19,643(21.4)	21,072(7.3)	20,579(-2.3)	23,966(16.5)	13,504(16.4)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1~2022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1년(연간)	%	7.6	5.6	3.1	3.7	2.6	
	2022년 1Q	%	3.7	8.3	5.0	5.0	5.0	
	2022년 2Q	%	4.8	N/A	N/A	N/A	7.3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121.8	N/A	118.1	N/A	4.8
		2022년 5월	-	140.0	358.2	119.3	N/A	10.4%
		2022년 6월	-	N/A	9.7	N/A	N/A	9.9%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1년(연간)	-	50.7	N/A	112.1	51.7*	N/A
		2022년 5월	-	50.4	54.1	124.1	50.8	54.7
		2022년 6월	-	50.3	53.8	N/A	50.2	54.0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1년(연간)	-	102.1	N/A	90.5	98.4*	N/A
		2022년 5월	-	107.6	N/A	N/A	128.9	N/A
		2022년 6월	-	N/A	N/A	N/A	128.2	N/A
	소매판매	2021년(연간)	-	90.7	4.5%	135.5	198.1*	3.8%
		2022년 5월	-	100.6	2.2%	164.1	234.1	22.6%
		2022년 6월	-	N/A	2.7%	N/A	229.1	27.3%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2.3	4.5	2.5	106.5*	1.8
		2022년 5월	%	5.6	5.4	2.8	110.4	2.9
		2022년 6월	%	N/A	6.1	N/A	111.1	3.4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1년(연간)	%	118	N/A	5.6	3.8	9.2(누계)
		2022년 5월	%	N/A	N/A	N/A	N/A	△16.3(누계)
		2022년 6월	%	N/A	N/A	N/A	N/A	△8.1(누계)
고용	실업률	2021년(연간)	%	2.6	N/A	4.6	N/A	4.0
		2022년 1Q	%	2.2	5.7	4.1	5.8	N/A
		2022년 2Q	%	N/A	6.0	3.9	N/A	2.3
무역	수출증가율	2021년(연간)	%	19.1	N/A	26.0	41.9	19.0
		2022년 5월	%	26.9	6.2	30.5	27.0	16.4
		2022년 6월	%	29.5	N/A	38.8	40.7	20.0
	수입증가율	2021년(연간)	%	20.4	N/A	23.3	38.6	26.5
		2022년 5월	%	38.7	31.4	37.3	30.7	12.9
		2022년 6월	%	32.5	N/A	49.3	22.0	16.3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K-MOVE



2022년 하반기 하노이 취업박람회

- 일시** 9/14(수), 09:00 ~ 17:00
- 장소** Novotel Hanoi Thai Ha, 1층 Thai Ha ballroom 2
(주소: so 2 Thai Ha, Dong Da, Hanoi)
- 내용** 사전 이력서 제출 구직자들의 면접 및 워크인 면접
(업체별 워크인 면접 가능여부 상이)

주요일정 *일정 변동 가능

- 구인처 선착순 모집 7/18(월) ~ 8/16(화)
- 구직자 이력서 접수 8/17(수) ~ 8/31(수)
- 서류심사 및 면접 스케줄 편성 9/1(목) ~ 9/6(화)
- 면접 대상자 발표 9/7(수)
- 행사당일 면접 9/14(수)

구인처 접수방법

하노이 K-Move센터 연락 후, 구인 정보 제출

신청기간: 7/18(월) ~ 8/16(화)

구직자 지원방법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사이트 회원가입
→ 메인 화면의 구인/구직 중 '구직' 클릭 →
해외일자리 검색란에 '하노이 하반기 취업박람회' 검색

이력서 접수 기간: 8/17(수) ~ 8/31(수)

*베트남 해외취업카페에서도 확인가능 (cafe.naver.com/kotrahochiminh)



[문의처] KOTRA 하노이무역관 K-Move센터

☎ 전화 +84-24-3946-0511 (Ext. 631)
+84-90-455-9251

✉ 이메일 kwon1@kotra.or.kr / koykotra@gmail.com



F.U.N Viet 2022년 KOBIZ 우수상품 박람회

□ 행사개요

- 행사명 : 2022년 KOBIZ 우수상품 박람회
- 슬로건 : "F.U.N Viet " Futrue, Unique, Network Vietnam!
- 행사기간 : 2022년 12월 1일(금) ~ 12월 31일(토) 각주단위 특화상품 전시
- 행사장소 : 베트남 문화예술 전시센터 Trien lam Van Ho
- 참가기업 : 약 100~120개 기업 (한국 참가기업 50부스 포함)
- 박람회 일정
 - 1) 1주차 : 의료 , 뷰티, 건강, 헬스케어 상품전 (12.01 ~ 12.04)
 - 2) 2주차 : 한국 중소·중견 기업 우수상품 및 아이디어 상품전 (12.08 ~ 12.11)
 - 3) 3주차 : 한국 지자체 특산물 상품전 (12.15 ~ 12.18)
 - 4) 4주차 : 관광, 지자체 홍보, 문화, 예술 등 (12.22 ~ 12.25)
- 주최 : KOBIZ
- 후원 : aT, 코트라, 주대한민국대사관, 한국중소기업중앙회

※ 부대행사 ※

주베트남 국제한인학교 학생 축하공연(오케스트라, 국악팀) 및 사생대회, KPOP 노래 경연대회, KPOP 댄스 경연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한국문화원 공동), K Movie OST Festival(컨텐츠진흥원 공동), 초청 공연, 박람회 참석 기업을 위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강연(aT 하노이, 코트라, 한국중소기업중앙회 공동)

- 행사관련 진행 세부내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행사취지

지난 2년간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감했던 양국간의 교류를 한-베수교 30주년과 더불어 베트남 입국이 자유로워진 시기에 **상호간 수출 무역 활성화의 자리**가 될 박람회 개최

2022년 한-베수교 30주년, 코로나 극복 다시 시작 베트남!

- 1) 새롭게 열리는 젊은 베트남 시장에 한국의 우수상품 소개
- 2) 건강한 한-베 유통환경 조성으로 지속적이고 끈끈한 네트워크 완성
- 3) 베트남 우수상품의 한국 및 한국을 통한 세계무대 진출 교두보

□ 행사목적 I

- 한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상품 정보 제공,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생성
- 양국 우수 기업 정보공유 플랫폼 구성, 실효성 높은 교역 및 상업 환경 창출
- 한국 지자체 추천 제품 베트남 내 전략적 홍보, 동시에 한-베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민관 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



□ 행사목적 II

-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소통 경험을 ...
- 파트너에게 새로운 넓은 시장을 ...
- 젊은이들에게 재미와 일할 기회를 ...

	KOREA Located			VIETNAM Located			
	한국중소기업	지자체/협회	하노이 중소기업공인	지자체/협회	베트남 중소기업공인	베트남 특화기업	관람객
부스 참여	한국중소기업으로 혁신적인 상품, 유니크한 상품 보유업체	한국 지자체 연결 지자체의 특화 상품으로 지속적인 베트남시장 영업과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협회	베트남에 위치한 한국 중소기업/상공인 중 한국과의 연결을 통한 지원 현지 마케팅 및 다양한 판매처를 연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	VCCI/베한 무역협회 베트남 지역별 경제단체 베트남 각급성 경제 단체 베트남 산업별 경제 단체 대사관/코트라/코이카/Kbz	베트남 중소기업공인 중 한국과의 교역이 필요한 성장 기업 및 혁신 기업	베트남 중소기업공인 중 한국에 꼭 필요한 상품을 보유한 혁신 기업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 젊은 CEO 기업 등	베트남 현지 방문 관람객 베트남 현지 교민 베트남 중소기업 한국 각급단체 한국 진출 대기업 지역 단체
벤더 참여	베트남 필요상품 또는 한국교민 상공인 연결	베트남 수입관련 주 수입회사 연결					

□ 주요참관객

- 한국 강소기업 중 우수상품 보유사
- 상품 수출 관련 정부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 베트남 현지 대형 유통업체 상품본부 담당자
- 베트남 현지 유통 회사/ 바이어/ 식음료 사업자 등
- 유통관련 협회/연구기관 담당자
- 20~60대 다양한 상품에 관심 높은 일반 참관객
- 대규모 수출/수입 벤더

□ 참가기관

- 기관 및 지자체 홍보관
- 국내 / 해외 기업관 (전시품목 해당 기업)

□ 문의처

- KOBIZ 사무국 | (전화) +84 24 6685 0100, +84 81 4415 847 | (이메일) scott@kobizvn.org

